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단체 운용 및 시민참여 방안의 한국 사회 적용을 위한 보전지 방문, 조사 및 연구

팀 명 :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시민참여활성화연구팀

팀 원 : 1조 - 김슬지, 유보미

2조 - 박정호, 전수정

연 수 국 : 영국

연수단체 :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연수기간 : 1조 - 2004. 8. 30-9.11

2조 - 2004. 9. 04-9.18

목 차

I. 서 론

1.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란?
2.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지나온 흐름
3. 연수 목적
4. 연수 방법

II. 본 론

1.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 1-1. 제도와 조직
 - 1-2. 재정
 - 1-3. 주요 활동
 - 1-4. 회원
2.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 2-1. 이벤트
 - (1) 이벤트 개괄
 - (2) 이벤트 체험
 - 2-2. 워킹홀리데이
 - (1) 워킹홀리데이 개괄
 - (2) 워킹홀리데이 체험
3.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
 - 3-1. 역사적 건축물과 정원
 - 3-2. 해안사구 (이스트헤드-East Head)
 - 3-3. 내셔널트러스트 마을 (레이콕 마을-Lacock Village)

III. 결 론

1. 서론

1.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이나 모금운동을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이르기까지 영구적으로 보전, 관리, 그리고 공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지나온 흐름

국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1993년 광주무등산 공유화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용인 죽전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산 일대와 대전의 오정골 외국인 선교사촌 등 지역적으로 성공적인 보존의 사례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지난 1999년 녹색연합이 신대백 변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건설 부지를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구입했으나 강제 수용 절차로 인해 저지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지역적인 땅한 평사기 수준에는 트러스트 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국내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지난 2000년 1월 25일,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발족으로 연결되었다.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태동은 그린벨트 보존 운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전면화를 추진하자, 그린벨트 보존의 실패를 경험한 시민환경단체들은 한국사회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시민들이 직접 매입하여 지키는 것임을 인식을 하게 된다. 그 대안운동으로서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위에서 언급된 사례들과 같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벌어지던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조직 속에서 활동하자는 취지를 안고 있다.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04년 현재, 시민유산 1호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시민유산 2호 “최순우 옛집”, 시민유산 3호 “동강 제장마을”을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19개 곳의 시민단체 및 보존단체와 함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1300여명의 정회원과 20명 남짓의 자원봉사자, 월 한두 차례의 시민참여형 생태기행, 년 1회의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12억 원 정도의 모금액이 보여주듯 시민참여가 미약한 상황이다.

3. 연수 목적

시민과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관리와 이용방안을 마련하여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는 시민참여를 운동의 핵심기반으로 하는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를 포함한 트러스트 단체들의 활동은 척박한 기증과 기부 문화, 환경 가치의 결여, 시민의 참여 부족, 그리고 담당 활동가들의 경험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시민참여활성화연구팀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발상지이자, 국토의 약 6%, 해안선의 17%를 관리 운영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을 방문, 단체와 보전지의 관리, 운영 및 시민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체험하고 연구하여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기획하였다.

본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시민참여활성화 연구팀은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실무자로 구성되었다. 2000년에 창립되어 현재 3개의 보전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확보한 보전지의 관리, 운용 방안, 보전지에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활성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발전적인 관계설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단체의 간사들이 주축이 된 본 팀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체험과 조

사, 연구를 통해 단체 활동의 효율화 및 시민참여 내용성의 풍부화를 꾀한다. 즉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발상지 영국을 방문, 조사, 연구하여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효율적 운용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 실질적으로 적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자연, 문화 보전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연수 방법

본 팀은 2조로 구성되어 1조는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중앙 조직체계와 회원, 그리고 이벤트를, 2조는 교육 및 자원봉사센터,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 중 문화유산지와 해안사구, 그리고 내셔널트러스트 마을을 중점 연구 대상으로 한다. 워킹홀리데이에는 1조와 2조가 각각 지역과 날짜는 달리하되 모두 참가한다. 즉,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협회, 회원관리국, 그리고 교육 및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자료 요청과 인터뷰를 통해 재정, 회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한다.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시민참여형 이벤트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보전지를 방문, 조사함으로써, 각각의 프로그램과 보전지와 운용 방법을 알아보고, 자원봉사 참여 및 관리 방안을 조사한다.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관련 자료들과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직접 체험과 인터뷰, 그리고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연수 일정

1조: 2004년 8월 28일~ 9월 12일 (총 15박 16일) 연수자: 유보미, 김슬지

날짜	방문장소	방문목적	위치	교통수단
8.28 (토)	인천 공항 출발→ 일본 나리타(1박)	경유		비행기
8.29 (일)	일본 나리타 출발→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 도착→ 노팅힐 카니발			
8.30 (월)	하이드 파크→ 내셔널갤러리→ Sheffield			
8.31 (화)	Sheffield-Dyrham Park-Bristol-Bath spa			
9.1 (수)	Roman Bath-Bath Assembly Rooms-Prior Park			
9.2 (목)	Bath-Touton-Banstaple-Dunster Castle-Minehead-Holnicote cottage	이벤트 참가 (하인생활체험)		
9.3 (금)	Holnicote Estate-Banstaple	이벤트 참가 (미니버스 투어)		미니버스
9.4 (토)	Cheltenham Spa-Chedworth Roman Villa-Tring-Chilterns(WH)	이벤트 참가 (검투사 관람)		
9.5 (일)	Ashridge Estate(coombe hill)	워킹홀리데이		
9.6 (월)	Ashridge Estate(pulpit hill)	워킹홀리데이		
9.7 (화)	Bradenham Estate	워킹홀리데이		
9.8 (수)	Day Off(Boarstall Duck Decoy, Waddesdon Manor)	워킹홀리데이		
9.9 (목)	Bradenham Estate(Bradenham Village)	워킹홀리데이 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지		
9.10 (금)	트링(Tring)-대영박물관 Osterley Park-런던 히드로 공항 출발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지 (공원)	London	지하철 도보
9.11 (토)	일본 나리타 도착(1박)	경유		비행기
9.12 (일)	일본 나리타 출발→ 인천 공항 도착			비행기

2조: 2004년 9월 4일~ 9월19일 (총 15박 16일) 연수자: 박정호, 전수정

날짜	방문 장소	방문 목적	위치	교통수단
9.4 (토)	인천공항 출발→ 일본 나리타공항 도착→ 닛코나리타호텔 1박	경유	Incheon Narita Heatrow	비행기 버스
9.5 (일)	일본 나리타공항 출발→ 영국 히드로공항 도착→ 빅토리아 역(Victoria)→ 치체스터 (Chichester) 역→ 슬링던 베이스캠프 도착	워킹홀리데이	South Downs - Slindon	비행기 지하철 기차 미니버스
9.6 (월)	슬링던 베이스캠프→ 셜린턴 워렌스 작업장 도착→ (Sullington Warrens) 담장 세우기 작업	워킹홀리데이	Sullington Warrens	미니버스 도보
9.7 (화)	셜린턴 워렌스 작업장 담장 세우기 작업	워킹홀리데이	Sullington Warrens	미니버스 도보
9.8 (수)	아룬델 (Arundel) 성(城)과 시내→ 이스트헤드(East Head) 해안사구→ 아룬델 시내 (Black rabbit)	데이오프 (dayoff) 저녁외식	South Downs- Arundel & East Head	미니버스 도보
9.9 (목)	셜린턴 워렌스 작업장 담장 세우기 작업	워킹홀리데이	Sullington Warrens	미니버스 도보
9.10 (금)	셜린턴 워렌스 작업장 담장 세우기 완성 수료기념 파티	워킹홀리데이	Sullington Warrens	미니버스 도보
9.11 (토)	워킹홀리데이 수료→ 비그너스 힐 (Bignors Hill)→ 비그너 로마 빌라 (Bignor Roman Villa)	내셔널트러스트 자연유산지 (구릉지대)	Bignor	택시 도보
9.12 (일)	슬링던 베이스캠프→ 업파크(Uppark)→ 치펜햄(Chippenham)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지 (건물과 정원)		택시 도보 히치
9.13 (월)	레이콕 마을과 사원 윌리엄 달봇 사진 박물관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지 (마을 보존지)	Chippenham	버스 도보
9.14 (화)	치펜햄 공공도서관→ 도킹(Dorking)역	다음 장소 이동을 위한 자료검색	Chippenham Dorking	기차 도보

9.15 (수)	폴레스딘레이시(Polesden Lacey)→ 교육 및 자원봉사 부서→ 런던(London)	내셔널트러스트 문화 유산지 (건물과 정원) 교육 및 자원봉사 담 당자 인터뷰	Polesden Lacey London	버스 도보 히치 기차 지하철
9.16 (목)	펜톤 하우스(Fenton House)→ 조지 인(The George Inn)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지 (도시 내 건물)	London	지하철 도보
9.17 (금)	런던 본부(Head office)→ 세인트 제임스 공원 (St. James's Park)→ 칼라일의 집(Carlye's House)→ 히드로 공항 출발	내셔널트러스트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위한 본부 방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지 (도시 내 건물)	London	지하철 도보
9.18 (토)	일본 나리타공항 도발→ 닛코나리타 호텔 1박	경유	Narita	비행기
9.19 (일)	일본 나리타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Narita Incheon	비행기

II. 본 론

1.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영국 내셔널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¹⁾는 1895년,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닌 장소들을 보존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단체의 정식 명칭은 '자연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보존하기 위한 국민신탁'(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Beauty)이다. 빅토리아 여왕 시절, 무분별한 산업화와 도시 개발로 인해 정주환경 파괴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 자의식적인 실천운동으로 출현하였다. 설립 멤버는 사회개량가 옥타비아 힐 여사(Miss Octavia Hill)와 변호사 로버트 헌트경(Sir Robert Hunt), 그리고 목사 하드윅 론슬리(Canon Hardwicke Rawnsley)이다.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취득한 땅과 건축물들은 오픈 스페이스라는 이름 하에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그리고 단체의 회원은 땅과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기부 뿐 아니라,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그 보전지들을 관리하기 위한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런던 시내를 물론이고, 영국 어느 지역에서나 내셔널트러스트 안내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태어난 아이를 위해 내셔널트러스트의 회원권을 선물할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시민들 가까스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신사의 나라라 불리는 영국 특유의 공공선 추구 및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건전한 목적, 잘 정비된 조직과 재정, 활발한 회원, 자원봉사, 교육, 그리고 이벤트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용이 그러한 정신과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기에 가능한 일일 터이다.

< 2003년 여름,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현황 통계 자료 >

항목	내용	비고
임야	약 24만8000헥타르	전 국토의 1.6% 해안지역의 17% 소유
해변	약 600마일 (965 km)	
역사적 건물과 정원	약 200여개	
산업기념물	약 49개	
회원	약 310만여 명 (영국 인구 5916만 4000명 기준 5%)	2002년 여름 - 2003년 여름 1년간 -> 신규회원 50만 명
정규직원	약 4,000여명	
계절직 직원	약 4,000여명	
자원봉사	약 40,000여명	

1)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본부 (London Central Office)

주소: 36 Queen Anne's Gate London SW1H 9AS

전화: + 44-(0)870-609-5380

팩스: + 44-(0)20-7222-5097

담당자: Jane Clarke (내셔널트러스트 전반에 대한 소개를 담당)

메일: Jane.Clark@nationaltrust.org.uk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의 비교>

영국내셔널트러스트	비교대상	한국내셔널트러스트
1895년	설립년도	2000년
3백만여명	회원수	13백여명
-보존지 무료입장 -핸드북, 소식지, 지역소식지 발송 -총회 의결권	회원혜택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 발송 -행사 참가비 할인 -총회 의결권
-197,884,404원 전체수입의 24%(2004.11)	회비수입	-157,100,000파운드 (314,200,000,000원) 전체수입의 53%(2003/04)
-25만1천 헥타르 이상의 토지 -965킬로미터의 해안선 -2백 개가 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가옥과 정원, 건축물	보전지	3곳 -멸종위기식물군락지 -역사적 가옥 -마을
-각보전지에서 진행하는 14가지 주제의 이벤트 진행 -400여개의 워킹홀리데이(매년)	시민참여프로그램	년 1회 국제워킹홀리데이 비정기적 보전지 행사
-education group회원이 있음 -교육담당 직원(10개의 보전지) -어린이를 위한 가이드 -교육 공간 마련 -고고학, 역사, 지리학, 지질학, 수학, 과학, 음악 등 학문적 정보제공 -환경교육 -강좌, 이벤트 등	교육	행사와 함께 진행 교육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없음

1-1. 제도와 조직

영국 내셔널트러스트가 약 24만8천 헥타르 이상의 토지와 965킬로미터의 해안선 그리고 2백 개가 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가옥과 정원,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대중에게 개방하는 영국 최대의 비정부기구(NGO)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07년 영국 의회가 제정한 내셔널트러스트 법(The National Trust Act)은 의회에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에 대한 영원한 책임과 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령을 기반으로 내셔널트러스트는 의회의 '동의 없이 보전지를 매매하는 등의 양도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시민의 힘으로 보전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영구히 그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내셔널트러스트가 보존하고 있는 가옥은 구조나 색상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그 거주민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다. 실제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내셔널트러스트 직원으로부터 보존 지역에서는 나무 한 그루도 허가 없이 손댈 수 없다는 설명

을 들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런던(London)을 비롯한 4개 지역의 본부와 11개의 지부에서 52명의 임원, 5천명의 직원과 매년 2백만 이상의 시간을 봉사에 기여하는 4만 명의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Annual General Meeting)를 통해서 결산 및 예산을 확정하고, 주요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의 절반은 내셔널 트러스트의 회원 중에서, 다른 절반은 잉글리쉬 헤리티지(English heritage), 내셔널 갤러리(The National Gallery) 등과 같은 내셔널트러스트의 목적과 관련된 지역 보호 단체나 박물관 등의 기관소속 전문가들 중에서 선출된다. 이는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을 함에 있어 그 만큼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총회 전에 건의된 안건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데, 정기총회(Annual General Meeting)에서 논의되지 않은 어떤 사업도 실행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안건 건의는 내셔널트러스트의 회원 모두에게 권한이 있으며, 정기총회에 참석 가능하다. 즉, 회원은 재정적 후원의 역할 뿐 아니라 조직의 실질적인 주체로 상정되어 있다. 결산 보고서(Annual Report)를 비롯한 신입임원 예정명단을 홈페이지나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공지함으로써 회원이라면 누구나 내용을 알 수 있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

1-2. 재정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산을 매입, 보존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체지출의 30%이상을 자산 취득이나 보존지의 보호·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사용한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를 비롯한 다른 일반 환경보전단체가 주로 모금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활동을 유지하는 반면,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보전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유산의 증여, 재산 기증을 포함한 회원들의 회비(전체 수입의 50%)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내셔널트러스트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관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내셔널트러스트 소유의 역사적 가옥들 5곳 중 4곳이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고, 지속적인 재정적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내셔널트러스트’ 라는 상표(보존지, 회원들에 대한 혜택)를 상품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필요자금을 마련한다.

내셔널트러스트의 마케팅은 자산의 매입, 관리에 필요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충당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보존지의 방문객 증대, 회원관리, 기금 후원자, 그리고 유산 기증자들을 위한 마케팅은 물론, 각 보전지에 위치한 상점(The National Trust Shop), 식당, 찻방(tea room), 유산지 별장(holiday cottage) 등과 같이 영리 활동을 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엔터프라이즈(National Trust Enterprises)²⁾를 운영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의 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수익은 트러스트 활동에 사용되며, 2003/04년에는 166만 파운드(우리 돈 약 35억) 정도가 환원되었다.

1-3. 주요 활동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주요 활동은 해안선, 교외지역, 그리고 역사적 건축물 등을 보존, 관리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자연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2) 내셔널트러스트 엔터프라이즈 (National Trust Enterprise)

주소: The Stable Block Heywood House Westbury Wiltshire BA13 4NA

전화: +44-(0)1373-828606

업무: 식당, 찻집, 내셔널트러스트 상점, 휴가 (내셔널트러스트는 몇몇 여행사와 동반관계를 맺어 회원을 대상으로 인근 국가의 유적지를 둘러보거나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개 소식지에 그 광고가 실려있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내셔널트러스트 엔터프라이즈에 문의하고 논의하여 결정된다.

알리기 위한 장기 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부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비정부기구로서 회원확대 및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재원마련을 위한 가게와 찻집 등을 운영한다.

i 보존, 관리 활동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목초지, 숲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 서식지와 정원, 경관, 공원, 그리고 오래된 유적 및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이 유년시절 거주했던 집과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가옥(내부 가구, 그림 포함)을 보존한다. 그리고 이의 관리, 운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일례로 각 방마다 자원봉사와 안내서를 배치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당시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보전운동'이라는 근본 목적에 따라 회원 및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집 혹은 정원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훼손위기가 있는 보전지에 한해, 공휴일이나 बैं크 할러데이(Bank Holiday) 기간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더불어 비성수기 기간에는 안내자를 동반한 탐방을 하는 등 적절한 통제를 통해 보존을 이어가고 있다.

ii 교육 및 자원봉사 운영

내셔널트러스트 보존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동식물 서식지, 역사적 건축물 등 내셔널트러스트 보존지를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식,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후원하고 있다. 학교를 비롯한 기업, 기타 단체와의 동반자 관계를(partnership) 맺어 학생, 선생님, 가족들에게 전시회, 강의,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2003/04년에는 50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바 있다.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유지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년 여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원이 4,000여명 인데 반해 자원봉사자는 그 10배인 약 40,000명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사무보조, 보전지 안내, 정원 손질, 현장에서의 자연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노년층의 자원 활동이 두드러진다. 건축물 혹은 공원에 가면 내부 안내자나 차량 운행자 중에서 노년의 자원봉사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내셔널트러스트는 관리,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자원봉사자들은 자연, 문화 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각 분야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으며, 전문성을 향상하고, 더불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연중 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1년간 스코틀랜드 내셔널트러스트의 보존지를 포함하여,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카드를 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2회 반복되면 내셔널트러스트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좀 더 자세한 교육 및 자원봉사 운영을 알아보기 위해 남부-동남부 지역의 교육 및 자원봉사 부서를 찾아가 담당자(Matthew Tyler Jones)³⁾와 인터뷰를 하였다.

3) 매튜 타일러 존스(Matthew Tyler Jones)

전자우편: matthew.tyler-jones@nationaltrust.org.uk

전화번호: +44-(0)1372-455052

담당업무: community, learning and volunteering manager.

customer services, National Trust South East Region

*** 남부-동남부 지역 교육 및 자원봉사 부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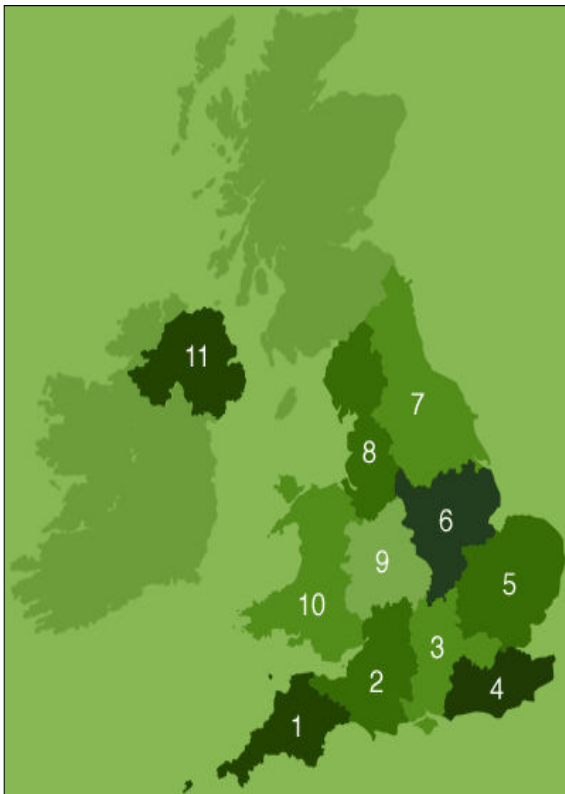
(Education & volunteering department of South & South-East)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그 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보존지 운영과 활동이 9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각각의 지역에 지역 사무소와 교육 및 자원봉사 부서가 있고, 이 구분에 따라 워킹홀리데이와 방문해 볼 만한 보존지 그리고 기타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http://www.nationaltrust.org.uk/main/nationaltrust/regional_pages.html

상기 홈페이지 접속하여 원하는 지역을 클릭만 하면 알고자하는 보존지나 선택 지역의 개괄적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각 지역사무소가 얼마만큼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출처: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홈페이지)

- ① Devon & Cornwall
- ② Wessex
-Bristol/Bath, Dorset, Gloucestershire, Somerset, Wiltshire, Oxfordshire
- ③ Thames & Solent
-Berkshire, Buckinghamshire, Hampshire, Isle of wright, Greater London
- ④ South East
-Kent, Surrey, East Sussex, West Sussex
- ⑤ East Anglia (East of England)
-Bedfordshire, Cambridgeshire, Essex, Hertfordshire, Nortfolk, Suffolk
- ⑥East Midlands
-Derbyshire, Leicestershire, Lincolnshire Northamptonshire, Nottinghamshire, Rutland
- ⑦Yorkshire & North East
-Newcastle & Tyneside, Co.Durham, N.Lincolnshire Northamberland, Merseysid
- ⑧North East
-Cheshire, Cumbria, Merseyside, Greater Manchester & Landcashire
- ⑨West Midlands
-Birningham, Herefordshire, Shorpshire, Staffordshire, Warwickshire, Worcestershire
- ⑩National Trust office for Wales
- ⑪National Trust office for Northern Ireland

4) Education & volunteering department of south & south-east

위치: 폴레스던 레이시 (Polesden Lacey) 내에 위치

가는 방법: Dorking 역에서 ?버스를 이용, ?하차 후 택시 이용 (약 10분 소요)

중앙센터는 스윈던(Swindon)⁵⁾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센터나 지역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존지에 내려 보내 진행을 시키는 하향식 방식은 없다.

- ㉠ 각 보존지에서 역사 또는 생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 ㉡ 학교 또는 그룹의 교육 신청이 들어왔을 때,
 - ㉢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 등의 경우 필요에 의해 센터에서 인력이 파견되거나, 브레인스토밍이 시작된다.

South& South-east 센터의 경우, 자원봉사관리를 담당하는 3명의 직원이 있다. 이들은 교육 담당자, 자원봉사 담당자, 정책 및 관리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바쁜 사람은 자원봉사 담당자. 1:1로 자원봉사자의 문제를 풀어내야 하며, 보존지에서 들어오는 문의에 대한 자원봉사의 문제를 풀어내야 하며,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한 지역 안에서도 수많은 보존지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 교육 및 자원봉사 담당자가 있다고 해도 각 보존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향식으로, 각 보존지에서 각각의 성격이 가지는 특유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센터로 문의가 들어오면 함께 만들어간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어디에서건 자원 활동을 하기 전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또 활동을 하면서도 교육을 받는다. 대체로 정년퇴임을 한 장년층이 자원 활동가로 많이 활약하고 있다. 연륜이 가지는 노하우(know-how)가 있고 시간이 넉넉하고,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위치한 보존지에 자체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 400개에 달하는 워킹홀리데이의 참가자들을 포함하여 NT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40,000명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숫자에 기가 놀려 담당자 매튜(이하 Matthew)에게 부러운 듯 물었다.



(사진설명: 교육 및 자원봉사 부서의 매튜)

5) 지역 교육 및 자원봉사 담당 부서 (Community learning & volunteering Department)

주소: Rowan Swindon Wilts SN2 7YL

전화: + 44-(0)870-609-5383

팩스: + 44-(0)1793-496813

메일: learning@nationaltrust.org.uk (교육 부분)

volunteers@nationaltrust.org.uk (자원봉사 부분)

P(박정호):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아무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모인 사람들이어도 백인백색을 이룰 것이며, 그렇다면 40,000가지의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Matthew: 그렇습니다. 각각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자원 활동가들이 요청하는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담당자는 쉴 틈 없이 바쁩니다.

P: 많은 자원 활동가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Matthew: 아.. 없습니다. 이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Y2K 버그 공격으로 프로그램 전체가 날아간 이후 다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나 보존지에서 자체적으로 자원 활동가들을 관리하고 있지요.

P: 저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자원 활동가들에 대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편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Matthew: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만 중앙에서 큰 돈을 들여 만든 프로그램이 모든 곳에서 활용도 높게 쓰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비효율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요. 아. 참! 한 보존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는 자원 활동가가 간단명료하면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자원 활동가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중앙 자원봉사센터에 알렸습니다. 정말 활용도가 높을 건지 검토 후에, 그렇다면 아마도 다른 보존지에까지 그 쓰임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P: 놀랍군요. 하긴 프로그램에 맞추어 자원 활동가들을 분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러저러한 관리방법을 이용해보다가 진정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옳은 거 같아요. 중앙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관료적인 하향식과 다를 바가 없을 테니까요. 근데 자원 활동가들이 꾸준히 활동하나요?

Matthew: 4-5년씩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년층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분들 대부분이 연륜도 있고 교사, 공무원 등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제공하는 자원 활동가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원 활동가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 연령층이 높아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자원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은 크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 활동가 관리 매뉴얼도 있습니다. (백과사전 두께의 책으로 엮어져 있다) 우리야 이 두꺼운 매뉴얼을 다 보고 일일이 알아야 하지만 보존지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배포합니다.

P: 그래도 자원 활동가 수가 엄청나다라는 점은 참 부럽습니다. 우리의 경우, 일회적인 자원봉사가 80%입니다. 대학생들과 같은 청년층의 도움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 그들 대부분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나 졸업을 위해 정해진 시간만큼만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단순작업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지요.

Matthew: 영국도 마찬가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그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보존지가 교통이 불편하고 자가용이 없으면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P: 하긴 저도 올 때 아주 막막했습니다. 운이 좋게 얻어 타고 오긴 했지만. 교통의 문제가 아주 크겠네요. 만약 젊은 층이건 연륜이 있는 층이건 자원 활동가들에게 유무형의 혜택이 있다면 그들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atthew: 원한다면 오래된 건축물의 보수와 문화재 관리와 같은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존지 입장 할인도 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혜택보다 이곳에서 활동한다는 거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 없이 교육 및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다. 어디든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교육 및 자원봉사 관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이렇다 할 체계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의 그것과 비교하기는 무리이다. 차차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발견

해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가장 눈 여겨 보고 도입하였으면 싶었던 부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노력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실험적으로 한 보존지에 대한 자료가 담긴 배낭을 만들어, 그 보존지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이 배낭을 하나만 메면 따로 가이드가 있지 않아도 스스로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박쥐로 유명한 성인 보디암 캐슬(Bodiam Castle) 경우, Tracker pack (탐험 가방)을 준비하고 있다. 빨강색의 눈에 확 띄는 이 배낭 안에는 아기자기하게 여러 가지 교육 자료가 들어있다. 이 배낭을 하나 짊어 매면, 안내자의 딱딱한 설명을 듣고, 지시하는 곳을 바라보고 이동하는 수동식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림책이며 박쥐가 그려진 망토, 색연필, 귀여운 박쥐 인형, 그리고 밥그릇과 숟가락까지 없는 게 없다. 매튜가 가방 안의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며 설명을 하는데 내 입에서 감탄사가 끊임없이 터진다.



(사진설명: 좌-탐험가방 안의 내용물. 우-탐험가방)

이 배낭을 가지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존지를 탐험할 수도 있다. 교육센터에서 만든 작은 안내책자 (Introduction book)를 부모가 손에 들고, 박쥐 망토를 쓴 아이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며 성안의 지하부터 탑까지 골고루 탐험을 하는 것이다. 밥그릇과 박쥐인형을 뭘까? 딱히 성 안이나 성 부근에 식당이 있지 않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도시락을 싸오게 한 후, 점심시간이 되면 '박쥐에게 밥을 주는 시간'을 두어 인형을 곁에 두고 맛있는 도시락을 까먹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사진설명: 좌·우-탐험가방안의 소개자료)

아이들이 좋아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탐험 가방이지만, 기 십 명의 참가자들을 대비하여 기 십 개의 가방을 만들어 두기에는 재정적인 무리가 따를 듯 하다. 따라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 두는데 그림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고 한다. 보통 이 가방 하나를 만들고 내용물을 채우는데 우리 돈으로 6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참가자들에게 대여비 2만원~3만원정도를 받아두고 프로그램을 마친 후, 강방을 회수하면서 되돌려 준다고 한다. 종종 가방을 탐내 가져가는 참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고안했다고 한다.

단순히 가방이 부러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만큼 교육에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내고 실험해 보는 모습이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떤 장소나 물건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 할 때는 그에 대한 체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오감을 통해 각인된 느낌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글쎄. 영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교육과 자원봉사 관리를 위해 어떤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얼마만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생각의 깊이를 배운 것 같다.

"당신들의 활동과 생각에 대한 의견 고맙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해보니 더욱 확실해 지는 것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그리고 자원 활동가를 관리하는 필요성과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배운 것은 단지 배운 것이지, 우리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더 노력하는 방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는 말에 매튜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제 바로 정답이라고 맞장구를 친다. 그의 미소에 나도 답을 하긴 하지만 내 표정과 반대로 머리 속은 무거워진다.

iii. 이벤트와 워킹홀리데이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iv. 가게(National Trust shop)와 찻집(Tea Room) 등을 운영



(사진설명: 좌-홀니코트 숙박시설(B&B) 중-오스터리공원의 찻집 우-던스터성 가게에서 전시된 상품들)

내셔널트러스트 가게는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는 물론이고, 대도시나 주요 관광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내셔널트러스트의 상표를 단 상품도 있고, 외부에서 들여온 물건들도 있다. 외부 물건의 경우, 주로 지역 예술가의 수공예품, 유기 농산물, 수제쿠키와 캔디, 허브 비누와 화장품 등이다.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혹은 자원봉사를 통해 무료입장 카드를 연속 2회 받은 사람들은 가게의 물건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찻집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다.

v.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국제연대

현재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호주와 미국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26개국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외국인이 참여 가능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s)의 한 종류인 벤처 홀리데이(Venture Holidays)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 타국의 내셔널트러스트 단체와의 교류는 미비한 편이다. 1977년 이래 3년마다 세계 내셔널트러스트 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이곳에서 참가한 나라마다 자연 및 문화유산의 바람직한 보존 방식과 상업주의의 문제를 놓고 고민과 협의를 하고 있다. 2003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내셔널트러스트 대회에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1-4. 회원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이다. 설립 당시에는 회원이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 3백만 명이상(영국인구의 약 5%)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회원이 증대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1만 파운드보다 1만 명의 1파운드가 더 중요하다’ 라는 내셔널트러스트의 신념에서 비롯된다. 회원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고, 특별히 회원관리국(The Membership Department)⁶⁾을 통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6) 회원관리국 (The Membership Department)

주소:P.O Box 39 Bromley Kent BR1 3XL

전화: + 44-(0)870-458-4000

팩스: + 44-(0)20-8466-6824

메일: enquiries@thenationaltrust.org.uk

근무: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 9시~ 오후 5:30까지

상기 주소의 회원관리국은 콜센터(call center)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영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300만을 관리하는 데만도 전문적인 부서가 필요할 것이고, 더 많은 회원 모집을

이런 혜택은 내국인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3만 명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비영리단체(NPO)인 로열 오크 재단(Royal Oak Foundation)과의 멤버십 제휴로, 로열 오크 재단 회원의 소득 공제분을 내셔널트러스트로 활동의 기금으로 기부하며, 미국인들에게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강의, 이벤트 등을 후원하고 있다. 영국내셔널트러스트는 미국회원들에게 자국내 회원들과 똑같이 잡지, 가이드북을 포함하여 보존지 무료입장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48천명의 외국인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외국인 회원 및 방문객을 유인하기 위해 영국 관광청(British Tourist Authority)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영국의 정원(British Gardens) 등과 관련된 출판물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물과 가입양식)

위해서 콜센터의 형태가 도입된 듯하다. 회원관리국의 운영과 정책 등 이론에 대한 문의는 런던본부의 회원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담당자 메일: Alex.youel@nationaltrust.org.uk

i. 회원 종류 및 회비

구분	명칭	내용	회비
1년 회원	Individual	개인회원	36 파운드 (75,000원)
	Additional Member	기존 회원과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규회원	24 파운드 (50,000원)
	Family One Adult	가족 회원 - 성인 한명과 아이들	49 파운드 (103,000원)
	Family Group	가족 회원 -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인 두 명과 아이들	65 파운드 (130,000원)
	Young Person 13-25	13세 이상 25세 이하 젊은이	16.50 파운드 (35,000원)
	Child - under 13	13세 이하 아이들	16.50 파운드 (35,000원)
평생 회원	Individual	개인회원	850 파운드 (1,800,000원)
	Individual Pensioner	60세 이상의 은퇴한 개인회원	570 파운드 (1,200,000원)
	Joint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인 두 명	1025 파운드 (2,200,000원)
	Joint Pensioner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인 두 명, 그 중 한명이 60세 이상의 은퇴한 사람일 경우에 해당	665 파운드 (1,400,000원)
	Joint Family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두 명의 성인과 18세 이하의 아이들	1140 파운드 (2,400,000원)

ii. 회원 혜택

구분	내용
무료입장	300여개의 아름다운 역사적 건물
	200여개 이상의 인상적인 정원
	600마일이 넘는 해안선
	251,000 헥타르 이상의 전원
	50여 군데 이상의 내셔널트러스트 주차장
내셔널트러스트 관련 책자 혹은 정보지 무료 발송	내셔널트러스트 핸드북
	내셔널트러스트 잡지
	내셔널트러스트 지역 소식지

2.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2-1. 이벤트

(1) 이벤트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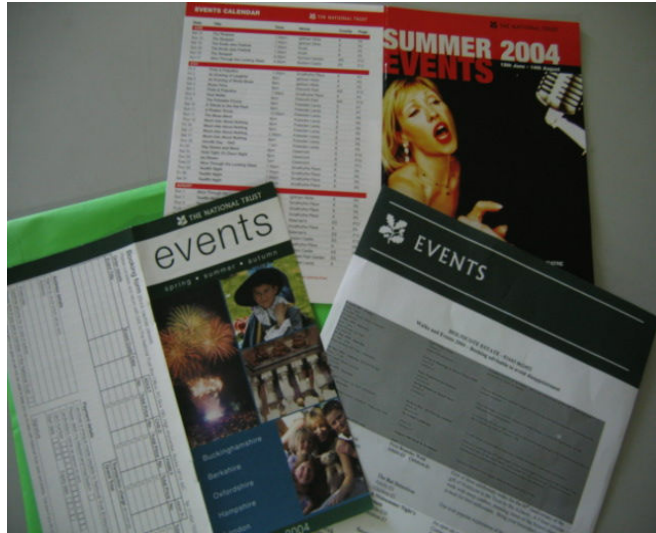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보전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영국 전역에 다양한 형태의 보전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보전지는 독특한 환경, 역사, 그리고 내용의 차별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보전지 각각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연중 다양한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기획한다. 기획을 편집하고 홍보하는 것은 내셔널트러스트 이벤트국⁷⁾에서 담당하지만, 보존지마다 차기년도에 어떤 행사를 진행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알려준다. 홍보는 인터넷, 이벤트 일년 달력, 작은 홍보물, 소식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장 크게 활용되는 것은 인터넷이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편리하고 일목요연한 이벤트 목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별, 주제별, 일시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벤트의 주제는 다음의 14가지로 분류된다.

- ① 활동, 워크샵
- ② 미술, 조각, 전시회
- ③ 드라마
- ④ 가족 나들이
- ⑤ 음식, 요리
- ⑥ 정원
- ⑦ 가옥, 건축물, 소장품
- ⑧ 점심식사, 차, 저녁식사
- ⑨ 음악
- ⑩ 실외활동
- ⑪ 공연, 박람회
- ⑫ 가이드를 동반한 관람
- ⑬ 산책
- ⑭ 야생동식물, 전원, 해안선

7) 이벤트국 (National Trust Events Department)

주소: Rowan Kimbury Park Swindon Wilts SN2 8YL

전화: + 44-(0)1793-462800



(사진설명: 내셔널트러스트 일년 이벤트 홍보물 및 보존비별 홍보물)

이벤트 일년 달력을 보면 양질의 풍부함에 놀라게 된다. 일반 포스터만한 크기에 가득 찬 이벤트를 보면 내셔널트러스트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연초에 대개의 행사시기를 정해두더라도 명확한 날짜를 정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일 년 치를 게다가 날짜까지 콕 박아 인쇄되는 것이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보통 9월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차기년도 이벤트 날짜가 정해진다고 한다. 상황을 예기치 못해 바뀔 수 있는 부분에 우려가 들어 물어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상기의 주제를 둘러보면 ①,④~⑩, ⑫~⑭번은 내셔널트러스트 직원이 없을지라도 해당 보존지에서 몇 번의 활동을 한 자원 활동가가 이끌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라고 한다. 또한 ②,③,⑪의 경우 지역마다 해당 주제를 가지고 이벤트를 잘 이끌어 나갈 만한 전문가 자원 활동가들이 있어 이벤트를 미리 기획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유비무환이라, 준비된 자에게는 일말의 두려움도 걱정도 없는 법인 것 같다.

이벤트의 주제는 우선 각각의 보존지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고, 그 장소의 의미를 쉽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그것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에게 환경과 역사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음악회, 전시회 등의 문화 공유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벤트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이 아니다. 요리나 가족 나들이, 그리고 점심식사나 차 등의 주제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부담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평소에 개방하지 않는 저녁 시간대에 회원들에게만 개방 하는 등 작지만 신선한 아이디어들도 적용하고 있다. 즉,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에서 개최하는 이벤트는 보존지 개방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사람들과 자연·문화간의 거리를 한층 가깝게 해주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시민 참여는 시민이 단지 참여 대상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또는 진행 요원으로서 이벤트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벤트 보조는 물론이고, 소규모의 이벤트일 경우 주체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 이벤트는 회원 중대에도 한 몫을 담당한다. 회원 소식을 통해 이벤트의 내용을 비회원에 비해 쉽게 알 수 있으며, 입장료와 마찬가지로 이벤트 참가비 역시 회원일 경우 면제 혹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셔널트러스트 회원은 회원으로써의 자부심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시에 비회원 참가자들에게 회원 가입의 동기를 부여한다.

(2) 이벤트 체험

본 팀의 1조는 3회에 걸쳐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이벤트에 참가하였다. 이벤트를 진행한 보존지는 서머

셋 지역의 던스터 성(Dunster Castle)과 홀니코트 지역(Holnicote East), 그리고 글로우체스터 지역의 체드윅스 로마 빌라(Chedworth Roman Villa) 등의 세 곳이다. 주최 측은 각 보전지의 특색에 맞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홈페이지와 소식지, 그리고 포스터 홍보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우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가능 지역과, 주제, 그리고 일시를 검색하여 이벤트를 선정하였다.

이벤트는 소수의 내셔널트러스트 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진행한다. 각 보전지에서의 이벤트는 대부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있고, 자원봉사자의 참여 또한 지속적이어서, 그들의 진행 능력 또한 높다.

참가자는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이벤트를 여는 보전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평일의 경우, 일 혹은 학교에 매여 있지 않은 노년층이 많은 편이다. 이는 지역민에게 지역 관광자원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층에게는 일상의 즐거움과 여유를 선사한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주말의 경우 가족 단위의 참가가 많아 가족 단위의 놀이 문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① 던스터 성(Dunster Castle)⁸⁾

이벤트 : 다락방과 지하실 탐험하기 (Attic and Basement Tour)

내 용 : 빅토리아 시대 하인들의 독특한 숙소 내 생활 체험

일 시 : 2004년 9월 2일, 오후 2시 30분

참가비 : 성인 6.8파운드 (약 14,300원)

주 의 : 5세 미만은 참가 불가

던스터 성 :

천 여 년 전 노르만 요새로 만들어 졌던 던스터 성은 그 이후 4차례에 걸친 내부 설계를 거쳐 현재 후기 빅토리아 시대 전성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사진설명: 좌-던스터 성 정면 모습 우-던스터 성 내에서의 가이드 설명)

동화에서나 등장할 듯한 아기자기하고 조용한 전원 마을 던스터에 위치한 던스터 성은 요새로 지어졌을

8) Dunster Castle

찾아가는 방법: Bath spa역에서 First 2,4버스

이메일: dunstercastle@nationaltrust.org.uk

전화: + 44(0)1643 821314

것이라는 추측처럼 우뚝 솟아 있는 강건한 건축, 그리고 화려한 내부와 아름다운 아열대의 정원으로 유명하다. 딸기나무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레몬 나무의 국립 수집처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던스터 성에서 밖을 내다보면 초원과 황무지, 사슴 사냥터, 목초지, 브리스톨 해협 그리고 던스터 마을의 전경 등 다양한 풍광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던스터 성을 재건축한 고고학자 안토니 살빈(Anthony Salvin)이 정작 관심을 갖고 강조한 것은 던스터 본래의 중세풍과 방대한 하인들의 생활공간이었다.

2004년,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빅토리아 시대의 하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평소에 개방하지 않았던 하인들의 생활공간을 속속들이 공개하는 것이다. 영국의 다른 성이나 역사적 건축물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던스터 성 역시 건축물과 정원(공원)을 구분하여 개방한다. 이벤트는 건축물을 개방하지 않는 날에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던스터 성 입구의 표 판매처 앞에서 모여 표를 구입하고, 두 명의 진행자들과 함께 성으로 향했다. 중년의 여성 직원이 설명을 하고, 남자 직원이 손전등을 비추거나 문을 열어주고, 낙오자가 없는지 살피며 이벤트를 보조해 주었다. 총 11명의 참가자 중 우리를 포함한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년 혹은 노년의 부부들이었다.

반 지하로 연결된 계단을 내려가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둡고 습기 찬 지하 특유의 냄새가 일행을 맞이한다. 그 곳에서 짧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본격적인 관람을 시작하였다.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측은 성의 이모저모를 5년간 조사하여 자료로 축적하였다고 한다. 안내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그 성에 살았던 하인들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그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한다. 실내에는 그 당시 하인들의 생활상과 작업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유지되어 있다. 각기 다른 작업을 다양한 소리로 알리는 벨들, 음식을 도르레를 이용해 아래위로 올리는 선반, 음성을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으로 전달해 주는 좁고 긴 동으로 만든 통로 등이 특히 눈길을 끈다.

우리는 하인들의 작업 공간에 뒤이어 생활공간을 둘러보았다. 생활공간에 가기 위해서는 동그렇게 말린 좁고 긴 통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며, 남녀의 생활공간은 건물의 좌우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바깥 풍경 혹은 귀족들이 살았던 성의 내부와는 달리 지하 내부 분위기는 어둡고, 가구나 생활 용품은 지나칠 정도로 간소하다. 안내자는 함께 돌아보며 남녀, 그리고 하인들 내부에서의 상하 차이에 따른 생활공간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평소에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곳의 가구들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는데, 이번 이벤트의 참가자들을 위해 하얀 천을 그때그때 거두어 가며 보여준다.

안내자는 그 시설물들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소리 내 볼 수 있게 해 주는 등 참가자들의 오감을 충족시켜 준다. 가구나 구조물 등을 조심스럽게 다루긴 하지만 보여 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 때는 과감하게 노출하고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여 주는 것이다.

안내자는 하인들의 삶이라는 주제는 물론이고, 그 건물의 역사와 내셔널트러스트와의 관계, 그리고 내셔널트러스트 하에서의 관리 과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던스터 성 뿐 아니라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일례로 주방 중에 1960년대에 개조하여 현대화 한 곳이 있었는데, 7년쯤 전에 개방을 생각하며 이전 시대 모습으로의 복원 여부를 두고 고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 지출도 클 뿐만 아니라 주방이 개조 될 당시의 구조물도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 그대로 두었다. 현대의 관람객들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이 주방의 현대화된 모습에 감탄한다.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 중 실내는 대부분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행 보조자에게 사진촬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더니, 안내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히 허용해 주겠다고 예의 친절 한 미소를 보내준다. 안내자는 동양에서 온 참가자들이 내심 걱정이 되었는지, 진행 중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배려를

잊지 않는다. 오감은 물론, 마음까지 흡족한 경험이었다.

② 홀니코트 지역 (Holnicote Easta)⁹⁾

이벤트: 가이드를 동반한 미니버스 투어

내 용: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인 홀니코트 지역의 농장, 마을, 해안선, 목초지 등의 아름다운 자연 체험 및 해설

일 시 : 2004년 9월 3일, 오전 11 - 오후 1시

참가비: 성인 5파운드 (약 10,000원)

홀니코트 지역 :

엑스무어(Exmoor) 국립공원과 던커리(Dunkery), 셸워시(Selworthy), 그리고 비콘스(Beacons) 지역에 걸쳐 황무지, 농장, 목초지, 해안 등이 펼쳐져 있고, 풍부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5042헥타르의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는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이다.



(사진설명: 좌- 홀니코트 풍경 중-하차 후 가이드의 셸워시 설명 우-미니버스 안에서 가이드 설명)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홀니코트 지역은 다양한 풍광을 자랑한다. 셸워시(Selworthy), 알러포드(Allerford), 보싱턴(Bossington), 호너(Horner) 그리고 루콘베(Luccombe) 등 전통적인 오두막과 농장이 있는 마을들, 남서부의 해안도로가 시작되는 마인헤드(Minehead)와 폴록(Porlock) 사이의 6.5 km에 걸쳐 있는 해안선, 그리고 들판, 숲, 황무지 그리고 마을들을 둘러 볼 수 있는 160 km에 걸친 산책길 등은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전경을 그려낸다. 게다가 풍부한 야생 동식물이 있으며, 희귀종도 다수 분포한다.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폴록(Porlock) 관광 안내 사무소와 공동으로 매년 안내자를 동반한 미니버스 투어와 산책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는 이 중 미니버스 투어에 참여했다.

안내자는 30대 중반의 자원봉사자였다. 안내자와 운전사, 그리고 참가자 10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은 폴록 관광 안내 사무소 앞에서 미니버스 투어에 탑승했다. 참가자는 우리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노년층이었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 되는 동안 대부분은 차량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고, 세 군테의 중요 전망지에서는 하차하여 풍경을 돌아보며 설명을 듣는다. 그리고 셸워시(Selworthy) 마을에서는 차에서 내려 마을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그 마을의 이곳저곳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셸워시(Selworthy) 마을은 1944년 내셔널트러스트의 소유가 되었고 ‘내서

9) Holnicote Estate

이메일: Holnicote@nationaltrust.org.uk

전화: + 44(0)1643 862452

널트러스트 빌리지(National Trust village)'라 명명되고 있으며, 내셔널트러스트 인포센터(National Trust info-center)가 있다. 개인 집 몇 채를 제외하고는 마을 전체가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이다. 셀워시(Selworthy) 마을은 폴록 그린파크(Porlock Greenpark)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전통적이면서 아름다운 옛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을 안에 있는 14세기에 지어진 교회 앞에서 하차하여 그린파크와 그 마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 모두 잠시 산책을 즐겼다. 그곳 건물들은 9년간의 작업으로 1829년에 완성된 건축물들이며, 손상된 것과 훼손되어 없어진 것도 있다고 한다. 오래된 집들이라 수리도 할 일도 많아 유지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그 마을을 포함해서 홀니코트 지역을 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직원은 자연 환경 관리자, 안내자, 건축물 관리자, 목수 등을 합해 약 15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 유지의 필요성과 어려움에 참가자 모두 잠시 숙연해졌다. 그러나 이벤트의 안내자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고 한다.

마을을 지나 언덕으로 이동하였다. 구대륙에 위치한 영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산이 아닌 낮은 언덕들이 부드럽게 솟아 있다. 언덕으로 이동하던 도중 야생 사슴을 발견하였다. 참가자들은 물론 안내자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고, 예정에 없었지만 잠시 정차하여 야생 사슴들을 관찰하였다. 차안에 비치된 망원경 2대로 돌아가며 사슴의 모습과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사슴을 뒤로하고 도착한 언덕은 풍부한 나무와 식물 그리고 곤충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약 50종의 나무를 보유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나들이 장소에는 300~400년 된 나무들이 많다. 공원의 60%는 과거 농경지였다고 한다. 내셔널트러스트는 그 곳에 나무를 심어 숲으로 가꾸었는데, 모든 작업이 기부와 자원봉사로 이루어졌다. 언덕을 올라 정상에 다다르면 뾰뾰한 나무숲은 사라지고, 하늘과 한줄 경계를 그으며 낮은 수풀이 카펫처럼 펼쳐진다. 그리고 초록의 목장에 점점이 한가로운 초가을 햇살을 즐기고 있는 하얀 양떼를 만난다. 양의 이동을 조심하라는 표지판의 존재 이유를 알려주듯 몇몇 겁 없는 녀석들은 찾길을 거닐며 사람들의 왕래를 경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도 운전사도 절대 서둘러 피하지 않고, 여유롭게 서로를 배려한다.

안내자는 홀니코트 지역과 관계된 해박한 지식과, 내셔널트러스트의 활동 과정 등에 얽힌 사연들을 풀어내고, 격의 없이 친근한 자세로 참가자와 소통함으로써 투어를 알차고 흥미롭게 진행한다. 또한 참가자들 대부분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이라서 오히려 안내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기도 한다. 다양한 자연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홀니코트에서의 미니버스 투어는 자연을 보는 맛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그리고 자연을 즐기며 생각하는 여유를 안겨주었다.

③ 체드월스 로만 빌라 (Chedworth Roman Villa)¹⁰⁾

이벤트: 글레디에이터!

내 용 : 기원전 글레디에이터(검투사)의 삶 재현

일 시 : 2004년 9월 4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참가비: 5.4 파운드(약 10,200원)

체드월스 로만 빌라 : 영국에서 현존하는 최대의 로마식 빌라.

10) Chedworth Roman Villa

이메일: chedworth@nationaltrust.org.uk

전화: +44(0)1242 890256



(사진설명: 좌-체드윌스 로마 빌라 모습, 중-검투장면 우-인포센타 정문에 게시된 일정표)

체드윌스 로마 빌라에는 1.6 km가 넘는 벽과 여러 개의 멋진 모자이크, 두 개의 목욕실, 온돌식 난방장치들, 사당, 그리고 화장실의 형태가 남아있다. 체드윌스 로마 빌라는 로마시대와의 연관성에 착안하여 ‘글레디에이터!’ 라는 재미있는 주제의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첼텐햄 스파(Cheltenham spa) 역에서 택시로 한참을 헤맨 끝에 외따로이 자리한 체드윌스 로마빌라에 도착했다. 화창한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흥미로운 기획 때문인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아이들이 로마 빌라를 찾았다. 대부분이 가족 단위였다. 영국에서는 가족 및 친구들과의 소풍(또는 산책) 문화가 일반화 되어있어, 풀밭에서의 관람이 자연스럽다. 각자 준비해 온 천을 깔고, 간식을 꺼내들고는 가장 편한 자세로 이벤트를 관람한다.

그 빌라의 한가운데 넓게 펼쳐진 잔디가 검투사들의 검투장이다. 이벤트는 2부로 구성된다. 1부는 20여 명의 검투사들의 훈련 과정, 2부는 1:1, 2:2, 그리고 다:다의 대련이며, 이것이 2회 반복된다. 검투사로 분장한 연기자들은 공식적인 훈련과 대련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벤트 시간 내내 그 당시의 생활을 재현한다. 그들의 생활공간과 검투장은 관람객과의 구분을 위해 줄 울타리를 쳐놓긴 했지만 관람객들은 자유로이 검투장 안으로 들어가 검투사들과 대화하며, 전시된 물건들을 관람한다. 관람객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공연자들은 철저하게 본분을 잊지 않고, 과거 시대의 검투사로써 대화에 응한다.

1부의 훈련이 끝나고 본격적인 2부의 대련이 시작되면, 해설자가 등장한다. 예전 로마 시대의 복장을 한 그는 검투장을 활보하며 검투의 역사와 검투사의 면면, 그리고 검투 동작에 대해 알려준다.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배경으로 그 시대의 옷을 입고, 그 시대의 무기를 든 검투사들의 대련은 관람객들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는다.

‘글레디에이터’ 이벤트는 내셔널트러스트에게는 보전지를 알리고, 보전지에서의 시민참여를 높이는 기회를, 그리고 관람객에게는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피크닉과 쌍방향식 역사 공연을 즐기고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2. 워킹홀리데이

(1) 워킹홀리데이 개괄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적극적인 자연·문화 보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하고,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보전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자 매년 다양한 형태의 워킹홀리데이를 진행한다. 영국 워킹홀리데이는 1967년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수천 개의 팀이 활동해오고 있다. 전국의 내셔널트

러스트 보전지에서는 매년 총 400여개의 다양한 형태의 워킹홀리데이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참가자 수도 4만 여명에 이른다.

<2004년 월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수	8	21	30	30	30	34	69	50	50	45	20	10	397

i. 워킹홀리데이 종류

영국 워킹홀리데이는 주제별, 지역별, 참가 연령별, 일시별로 다양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흥미와 요구, 그리고 사정에 맞게 자연·문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원봉사의 기회를 접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Acorn Holidays (도토리 휴가)¹¹⁾**

가장 광범위하게 실외 보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잘 조직된 형태의 워킹홀리데이, 시골에서 내셔널트러스트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 방학기간에 18에서 28살 사이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다. 만약 28살 이상이라면 21Plus 혹은 Oak holiday에 참가할 수 있다.

*** Archaeological Holidays (고고학적 휴가)**

고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땅을 파거나 청소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고고학과 관련한 경험을 갖고 있으면 더욱 좋다.

*** Construction Holidays(건축 휴가)**

수리 혹은 돌 벽 다시 쌓기 등 건축과 관련된 작업에 도전하고 싶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워킹홀리데이. 그 분야에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 건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참가 가능하다. 숙련된 기술자가 작업 내내 함께 한다. 참가자는 안전한 작업 부츠를 준비해야 한다. 다른 필요 장비들은 워킹홀리데이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18세 이상부터 참가 가능하다.

*** Events Holidays (특별행사 휴가)**

내셔널트러스트는 매년 말 타기, 콘서트 등 매력적인 이벤트를 주최한다. Events Holiday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이벤트 개최를 돕는 일을 수행한다. 이벤트 기간동안 정해진 시간외의 작업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시 이러한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고 싶은 정도로 흥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Events Holiday에 참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Acorn Holiday에 참가해 보는 것이 좋다.

*** Oak Holidays (참나무 휴가)**

Oak Holiday는 35세의 외부 자연보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

11) Acorn Holiday(도토리 휴가)

영국내셔널트러스트의 상징은 참나무 잎과 열매이다. 에이콘 홀리데이 참가대상은 대개 워킹홀리데이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이다. 늙디 자란 참나무는 도토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워킹홀리데이의 명칭을 도토리라 붙인 듯 하다.

람들은 혼자 참가하지만 간혹 커플이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커플이라 해도 숙소는 규정에 따라 남녀 구분하여 따로 이용해야 한다.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친절과 협동하는 분위기, 그리고 만족스러운 작업과 팀워크 등을 제공하므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매년 다시 찾는다.

* Oak Plus Holidays (참나무 더하기 휴가)

내용은 Oak Hoilday와 같고, 50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Short Breaks (짧은 휴식)

일주일의 시간을 낼 수 없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2,3일 동안 자연 보전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형태는 Acorn 과 비슷하지만 Acorn 이 마지막 날 오전 10시에 해산하는 반면, Short Breaks 는 마지막 날은 오후 4시에 해산한다.

* Touchwood Holidays (부싯깃 휴가)

연간 프로젝트를 통해, 특별한 필요 사항 혹은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환영하지만 그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내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자연 보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형태는 Acorn 과 유사하다.

* Trust Active Holidays (트러스트 활동 휴가)

안내자와 숙달된 직원을 동반한 자연 보전 활동과 외부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다. 지역의 위치와 기후 특성에 따라 산 산책, 카누 타기, 암벽 등반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 John Muir Holidays (존 뮤어 휴가)

웨일즈 지역의 몇몇 Trust Active Holiday는 John Muir¹²⁾ 자연보호 기구(John Muir Conservation)에서 기획 운영 한다.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젊은이들과 도전 의욕이 충만한 24세 이상의 사람도 참가 가능하다. 자연 보호를 위한 작업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들은 1박 2일 동안 지역 풍광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산책, 사이클링, 등반 등이 진행된다. 워킹홀리데이 주 마지막 날에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조직된 John Muir 상(John Muir Award)을 받는다.

* 16 Plus (16 더하기 휴가)

Acorn 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유사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다양한 자연 보전 활동과 내셔널트러스트 작업을 함께하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 21 Plus Holidays (21 더하기 휴가)

Acorn 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21세 이상 35이하의 사람들이 참가한다. 따로 공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숙소는 침실과 뜨거운 샤워가 가능한 편안한 베이스캠프가 제공된다. 작업은 기본적인 Acorn 보다는 강도 높게 높은 수준에서 진행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오지만 커플이 올 경우 숙소 사용의 남녀 분리 원칙에 따라야 한다.

12) 존 뮤어 (John Muir)

자연과 야생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보존을 위해 열정적인 정치활동을 펼친 위대한 탐험가이자 작가.

* Premium Holidays(고급 휴가)

낮 시간 동안의 작업도 좋아하지만 저녁시간을 멋지게 보내고 싶은 자원 활동가들을 위해 마련한 워킹홀리데이. 주제와 다양한 작업이 있다.

Snowdon에 위치한 숙소는 새롭게 리모델링한 전형적인 빅토리아 시대 신사들의 거주지인 크래플린(Craflwyn) 홀이다. 고급 식사가 제공되고, 트윈과 싱글 룸을 갖추고 있다.

* Venture Holidays (모험 휴가)

타국의 자원봉사자들과 10에서 15일 정도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관계를 맺는 워킹홀리데이. 국제적인 비영리 자선 기구인 콘코디아(CONCORDIA)와 함께 조직하고 진행한다. 6~7 명의 영국인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동수의 영어 가능한 외국인들이 참여한다. 자연보호 활동과 더불어 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한다. 타국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영국 자원봉사자들은 특히 환영이다. 18세 이상부터 참가 가능하다.

* Wildtrack Holidays (야생 탐방 휴가)

내셔널트러스트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식물학 동물학적으로 중요하게 발견된 종들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한 워킹홀리데이로써,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 자연주의자, 식물학자 그리고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영국 꽃 등과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작업 내내 전문가가 조언과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이다. 워킹홀리데이 기간동안 그 보전지역과 그 지역의 습성에 대한 지침이 제공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식물과 동물 등에 대한 도감과 10배 확대경만 지참하면 된다. 나머지 장비들은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ii. 워킹홀리데이 진행 주체

영국 워킹홀리데이 참가 신청을 포함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조직은 워킹홀리데이 예약 사무소(Booking Office)¹³⁾이다. 참가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은 홈페이지 혹은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예약 사무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일년치의 워킹홀리데이 안내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내셔널트러스트 본부 또는 워킹홀리데이 사무국에 이메일과 전화로 요청하면 발송해 준다.

예약 사무소는 참가 신청을 확인한 후, 참가 가능 여부를 메일과 우편을 통해 회신 한다. 참가 가능한 곳을 신청했을 경우 예약 사무소 측은 참가하게 될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도착 첫날 어디서 내셔널트러스트 미니버스를 탑승할지를 묻는 란에 체크 후 회신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한다.

만약 이미 신청이 마감된 곳을 신청했을 경우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후처리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를 보내준다. 신청이 되었어도, 신청자가 너무 적을 경우 다른 워킹홀리데이를 제안 해 주거나 환불을 해 준다. 신청이후 28일 내에 취소 시 환불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제교류 워킹홀리데이인 벤처 홀리데이를 제외하고는 한 국가나 한 단체에서 2명이상이 같은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13) 워킹홀리데이 예약사무소(Working Holidays Booking Office)

주소: Sapphire House, Roundtree way, Norwich, NR7 85Q

전화: + 44-(0)8704-292429

팩스: + 44-(0)8704-292527

웹페이지: <http://www.nationaltrust.org.uk/volunteers>

브로셔 요청 전화: + 44-(0)8704-292428

워킹홀리데이에서의 작업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도와 설명 하에서 진행된다. 직원은 사무원이 아닌 자연·문화 유산지에서 현장 보전활동을 직접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숙련도와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다. 작업의 내용과 장소를 선정하고, 작업 전에 그날의 활동과 장비 사용, 그리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주며, 함께 작업한다. 몇몇 종류의 워킹홀리데이를 제외하고, 직원은 작업만 함께하며, 그 외 숙소에서의 생활 혹은 외부 활동은 함께하지 않는다.

각각 워킹홀리데이의 총 책임자는 자원봉사자이다. 두세명의 자원봉사자가 워킹홀리데이를 이끌어 가는 데 그 중 총책임을 맡는 사람은 자원봉사자 리더, 그리고 리더를 보조해주는 사람은 보조 진행자 (assistant leader)라 칭한다. 즉, 워킹홀리데이를 이끌어 가는 사람과 참가자 모두가 자원봉사자인 셈이다. 자원봉사자는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의 생활 전반에 총 책임을 맡는다. 이들은 그 전에 워킹홀리데이 참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써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는다. 그들은 지출과 요리 등을 포함한 베이스캠프 생활 전반과 작업 후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한다. 그러나 원칙은 지키되 결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리더의 중요 미덕 중 하나는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다시 말해 워킹홀리데이의 구성원이 서로 즐겁게 생활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원봉사 리더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이다.

iii. 워킹홀리데이 생활

주로 내셔널트러스트에서 관리하는 베이스캠프에서 생활한다. 베이스캠프는 외딴 곳에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는 오두막이나, 농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의 대부분 주방,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부스, 그리고 2층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혹은 산 속 오두막이나 17세기 빌라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사진설명: 좌-베이스캠프의 부엌. 우-베이스캠프의 침실)

식사는 참가자들이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점심 도시락은 매일 아침 각자 챙긴다. 따라서 도시락통과 컵은 필수 준비물이다. 청소는 자발적으로 모두 함께함을 기본으로 한다. 베이스캠프 침실에는 대부분 침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참가자는 각자 침낭과 베개를 준비해야 한다.



(사진설명: 좌-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 모습. 우-일과 후 간단한 놀이를 하는 모습)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저녁시간에는 각자 휴식을 즐기거나 함께 게임 혹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저녁 식사 당번이 저녁을 준비할 동안, 거실에 모여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면서 여유있게 하루를 정리하기도 한다. 특별히 규정된 프로그램 없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일주일간의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중간 정도에는 하루 휴가가 주어진다. 휴가 속의 휴가인 셈이다. 데이오프(day-off) 라고 불리우는 이 날에는 작업을 하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지를 돌아보거나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를 방문한다. 이 날은 철저히 노동 배제하므로 저녁 식사도 외식으로 해결한다. 대신 저녁식사비는 참가자들 각자가 부담한다.

iv. 워킹홀리데이 수료

워킹홀리데이를 수료하면 설문지와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카드를 나누어 준다. 설문지는 워킹홀리데이와 자원봉사 리더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일종의 피드백을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설문지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본부로 전해져 워킹홀리데이의 수정·보완을 통한 발전의 자료로써 사용된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자원봉사 리더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추천하면, 리더는 내셔널트러스트 측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원봉사 리더의 활동에도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다.

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연간 5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그 자원봉사자에게 1년간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카드를 준다. 따라서 1주일 이상의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은 한번의 참가로 무료입장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그 카드에는 자원봉사자의 이름과 함께 무료입장 가능 날짜가 새겨진다.

v. 워킹홀리데이 해외 참가자

기본적인 영어 회화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수수료와 국제 전화료, 국제 우편료 등을 고려하여,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5파운드의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한다. 지불방법은 카드로 하며, Visa · Mastercard · Delta · Switch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

(2) 워킹홀리데이 체험

본 팀은 2개조로 나누어 각각 지역과 날짜를 달리하여 Acorn Holiday(도토리 휴가)에 참가하였다.

① 1조 : Central Chilterns

조원 : 김슬지, 유보미

참가기간 : 2004년 9월 4일 ~ 9월 11일

1조는 런던에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센트럴 칠턴스(Central Chilterns)¹⁴⁾에서 워킹홀리데이(이하 WH)에 참가했다. 트링(Tring)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자원봉사 리더가 운전하는 미니버스를 타고 베이스캠프에 들어섰다. 참가자는 10대 후반과 20대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었고, 자원봉사 리더는 30대 보조자 두 명은 각각 50대와 30대로 구성되었다.



(사진설명: 센트럴 칠턴스의 베이스캠프와 미니버스)

베이스캠프는 울창한 수풀로 둘러싸인 숲 속에 자리하였고, 기본적인 시설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숙소로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WH 기간동안의 생활 수칙과 식사 및 설거지 당번을 기록한 안내서를 받은 후 리더의 설명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식사와 설거지는 2명씩 짝을 지어 돌아가면서 담당한다. 요리 담당인 50대의 보조자 Ken이 모든 참가자들의 식사 준비를 도와주었다. 저녁 식사 후에 주어지는 여가 시간은 말 그대로 자유였지만, 우리는 리더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을 즐기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이때 이루어지는 즐거운 분위기가 생활은 물론이고 작업까지 이어져 WH 기간 내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

14) 담당 직원

직원 Jeremy Page(jerry.page@nationaltrust.org.uk)

Matt Shrimpton

리더 Anne Brook(anne_misselbrook@hotmail.com)



(사진설명: 좌-Coombe 언덕에서의 관목제거 작업 모습, 우-Park Wood 지역에서의 길 보수 작업 모습)

작업은 목초지 유지를 위한 관목 제거와 비로 인해 유실된 숲 속의 길을 보수하는 것이었다. Central Chilterns 지역은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 중에서도 관목 제거 작업을 통해 목초지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성공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초지에서 자생하는 식물과 꽃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뺏어나가는 관목을 자르고 불태워 목초지를 보호한다.

사실 목초지는 양을 방목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초지가 원시적인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양은 영국인들 음식의 주재료이고 양의 방목을 위해 목초지를 유지하거나 넓혀갈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초지는 그 역사가 길어 이제 자연스러운 영국의 풍경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보호·유지해야 할 지역이 된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현재 연중 내내 양을 키우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름에는 언덕 높은 곳에서 풀을 뜯는 이 지역의 양 120마리가 겨울에는 이곳으로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관리를 받는다고 한다. 목초지 보호의 이유와 더불어 지역 경제와 내셔널트러스트와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는 셈이다.

관목은 톱과 lopper 이라는 가위처럼 생긴 도구로 자르고 한데 모아서 불태워 버린다.

관목 제거 작업을 한 Coombe 언덕 지역은 1918년에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가 되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이 곳에서는 영국 수상의 별장인 체커스가 내려다보인다. 이 곳의 숲에는 아름답리나무가 많고, 언덕 위의 평평한 땅에는 백악기에 만들어진 백악질(chalk)이 다량 분포되어 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이곳을 공원으로 관리하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언덕의 곳곳에 형성된 세수 대야 크기만한 작은 언덕 들이다.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개미들이 만든 언덕이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는 노간주나무(Juniper)가 유명하다. Coombe 언덕에서는 15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노간주나무를 보았는데 언덕에서 홀로 바람을 마주하고 있어서 인지 세월의 더께를 덮은 채 언덕에 기대어 누워있었다. 내셔널트러스트 측에서는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오렌지색 줄을 걸어 놓았다. 내셔널트러스트 직원은 작업이 끝난 후 주변의 보전지역을 함께 산책하며, 그곳의 보전 가치, 나무와 식물, 꽃, 숲 관리 방식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는 자연 관련 지식은 물론이고, 그곳의 자연과 작업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다음 작업 지역은 Park Wood였다. 그 곳에서도 목초지 보호를 위해 관목을 제거했으며, 비로 유실된 길을 보수하였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Matt Shrimpton은 1000에이커가 넘는 그 지역을 혼자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넓은 지역을 혼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우리처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이 있어 가능하다고 답한다. 비로 유실된 길은 빗물이 아래 계곡으로 흐를 수 있도록 흙을 파로, 주변의 자갈과 흙을 모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내셔널트러스트의 WH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그 지역의 보전 활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우리의 경우만 하더라도 작업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목초지 한 구역의 관목을 모두 제거한다거나, 길 보수 작업을 완성하는 등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작업을 완수하였다. 이는 내셔널트러스트의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참가자들의 성취도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한 사람들 중 자원봉사 리더와 보조자는 모두 내셔널트러스트의 회원이었지만, 참가자들은 모두 비회원이었다. 그리고 참가자들 중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WH 첫 참가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은 리더나 보조자로부터 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이 필요함을 체득하게 된다.

② 2조 : Slindon

조원 : 박정호, 전수정

참가기간 : 2004년 9월 4일 - 9월 11일

우리 조가 워킹홀리데이(이하 WH) 참가를 위해 선택한 지역은 영국 남부, 슬링돈(Slindon)의 워렌스(Warrens). 아름다운 자연과 기후를 지닌 영국 남부지방은 영국인들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는 지역이다. 바다와 언덕, 농장, 대저택과 정원이 각각 오랜 역사와 풍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내셔널트러스트의 유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만 보더라도 남부지방에 뽁뽁하게 표시가 되어있다.

우리 조가 참여한 WH는 20여 년이 넘는 담장을 헐고 새 담장을 만드는 일이었다. WH의 100에 80퍼센트가 담장 만드는 일이라는데, 그렇게 영역을 표시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우리 문화와 사고방식에서는 '왜 담장을 만드는 거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선 숲의 영역을 표시하여 이곳이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라는 것과 동시에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알린다. 또한 숲 안의 나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나무 기둥을 땅에 박기 위해서는 구멍을 파야 하는데 약 1미터 정도를 파 내려가야 한다.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파고 또 파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휴식을 권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하면서 친분이 두터워진다. 또 하나의 재미는 종종 이전의 담장을 세울 때 함께 묻혔던 20년 전의 과자봉지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게 아주 흥미롭다. 우리가 세운 담장 또한 앞으로 20년이 넘게 이 곳에서 있게 될 것을 생각하면 뿌듯하기만 하다.



(사진설명: 좌-나무 기둥에 홈 파기. 우-담장 세우기)

워렌스에서의 WH는 9월 4일~ 1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학교는 개학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대부분 휴가기간이 끝난 시기이다. 그런데 WH의 12명 인원은 완벽하게 채워졌다. 그럼 이 사람들은 노는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요, WH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 된다. 물론 우리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99%이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보자면, WH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는 하나, 이 프로그램에 몇 년씩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WH는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이다. 스스로를 '미친 사람(crazy man)' 이라고 표현한 마이클(Micheal)은 93년부터 WH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약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당신의 휴가를 옷에 흙을 묻히고, 땀 흘리는 데 투자하고 또 참가비까지 내는 이 일이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에 "남들이 보기에 저는 미친 사람 이지요" 하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IT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린 기회가 없다. 운이 좋게도 사무실이 조용한 숲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근무환경은 좋지만, 공기 좋고 목가적인 곳에 와서 진정한 노동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이 일이 좋다고 한다. 고개를 끄덕일만한 대목이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해 보고 싶고,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설명: 좌-데이오프에 인근 해안사구 방문. 우-데이오프에 저녁 외식 후 시원한 맥주 한잔)



(사진설명: 좌-식사당번 및 안전사항을 적은 자료들(베이스캠프 내 게시판). 우-달콤한 휴식)

순전히 '밥-일-휴식-잠'의 단순한 일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참가자는 자신의 식사당번과 설거지 당번 차례가 돌아오면 맡은 바 일을 하면 된다. 하지만 특별한 생태 프로그램이나 주최 측에서 준비한 사교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당번이 아니더라도 함께 설거지를 하고 접시를 닦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운다. 각자 준비해 온 게임을 함께 하거나 즉석에서 게임을 만들어 즐기기도 한다. WH에는 리더와 어시스턴트 리더가 있지만, 이들이 일과 놀이를 주도하여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체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베이스캠프에서 일터까지 운전을 해주고 응급처방 등을 담당할 뿐, 참가자와 동등하게 일을 하고 생활한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참가자들은 제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성별, 나이, 경력을 떠나서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자신의 컨디션을 자신이 조절하여 일과 휴식을 병행한다. 아무도 타인을 간섭하지는 않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는 어디서든 존재한다. 이기주의적 배려가 아니라 똑같이 자연 안에서 육체노동을 하면서 자연의 섭리에서 배우는 배려와 같은 것이다. 내가 힘이 들면 내 앞의 사람도 힘이 들 테니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나누자! 라는 이타적인 배려였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WH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러 이러한 것들은 지킵시다! 라고 서로 애기한 것도 아닐 텐데, 무언중에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 때문인지. 참가자들의 성향인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참 부러운 점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휴식을 취하는 중에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lovely'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쓴다. 수채화같이 아름다운 숲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속으로 느끼는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정을 이완하게 만들어 주어 한 번 더 주변의 자연을 둘러보게 하는 효과를 내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 번쯤 이런 말을 내뱉었다. "이곳에 다시 와봐야겠어." "이곳 자연은 정말 아름다워, 계속해서 지켜져야 해" 등등. 자연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 자연사랑을 확고하게 해주는 계기로서의 WH이기도 했다.

서양의 WH와 동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WH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참가자와 주최자 모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를 떠나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란 것을 다시 한 번 강렬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설명: 담장 세우기를 마치고 다함께)

	1조(김슬지, 유보미)	2조 (박정호, 전수정)
활동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mbe hill / South and South-East area · park wood / South and South-East a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llinton Warren /South and South-East area
베이스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terns Basecamp ·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tring역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 ·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9세기에 지어진 두개의 목조 건물이 있음. · 하나의 건물은 남자용, 여자용 방 두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건물은 주방, 식당, 화장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lindon Base camp · Chichester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한적한 곳. · 옆에 Slindon college 위치. · 앞에 South down regional office가 있어서 slindon estate 뿐 아니라 인근의 내셔널트러스트 사이트에서 일하는 warden들이 많이 찾아옴. ·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창고가 여러 개 있음.
참가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3명 · 참가자 8명(18세-27세 / 남2명, 여6명) · 자원봉사 리더 여1명 · 자원봉사 어시스턴트 리더 남2명 · 내셔널트러스트 직원(warden) 남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7명 · 참가자 13명(20세~70세 / 남6명, 여7명) · 자원봉사 리더 남 1명 · 자원봉사 어시스턴트 리더 남 1명 · 내셔널트러스트 직원 (warden) : 남 2명
활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초지 보호를 위한 관목제거 작업 · 비로 유실된 길 보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heater의 생장을 막는 나무를 뿌리 채 제거 · 이전의 썩은 나무 담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담장을 만드는 작업 · 산책로로 뺀어 나온 가지 제거
하루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 30 기상 9 : 00 작업 11 : 00 휴식 11 : 30 작업 13 : 00 점심식사 14 : 00 작업 15 : 00 작업지 자연 체험 17 : 30 활동 종료 23 : 00 취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 30 기상 9 : 30 작업 10 : 30 휴식 11 : 00 작업 13 : 00 점심식사 13 : 40 작업 15 : 00 휴식 15 : 15 작업 17 : 00 작업 종료 23 : 00 취침

3.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

3-1. 역사적 건축물과 정원

i. 칼라일의 집(Carlyle's house)¹⁵⁾



(사진설명: 칼라일의 집 전경. 내부사진을 찍을 수 없어 외부사진만 촬영하였다)

칼라일의 집(Carlyle 's House)은 '프랑스혁명사'를 쓴 칼라일이 살았던 집이다.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의 사후 14 년인 1895년 5월에 시민의 기부를 통해 보전될 수 있었다. 그리고 칼라일의 소유물은 기부를 통해 개방되었는데, 1936년에 수탁자들은 그들의 재산이 영구적인 보존이 가능한 조직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칼라일의 집은 내셔널트러스트의 보전지가 되었다. 그리고 1978년 익명의 후원인에 의해 내셔널트러스트에 기증되었다.

지상 3층과 지하1층으로 구성된 이 집은 부엌과 저장소, 빨래방이 있었는데 저장소는 현재 사무실로 쓰인다. 1층에는 피아노와 응접실이 있고, 2층에는 침실과 서재, 3층에는 칼라일이 집필 작업을 했던 서재가 있다. 각 방에는 가구와 그림, 칼라일과 제인(칼라일의 부인, 화가)의 작품이 비치되어 있고, 그들의 지인들이 기증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엽서나 작은 수공예품 등). 방을 꾸미는 있는 물건들은 비록 칼라일의 것은 아니었으나, 그가 살았던 집의 모습을 상상하게 해준다.

건물의 성격이나 활용방법, 전시요소들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매입한 최순우 옛집과 비슷한 점이 많으나, 규모가 큰 다른 영국의 다른 시민유산들에 비해서는 그 활용도가 크지 않아 보였다. 그럼에도 다른 영국내셔널트러스트와 같이 그 곳에는 상근활동가 이외에 중년이후의 안내자가 2명이나 있어 관람객들이 편안히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그곳을 방문하여 특별히 더 흐뭇하고 기분 좋

15) 칼라일의 집

주소: 24 Cheyne Row, Chelsea, London SW3 5HL, England

전화: +44-(0)20 7352 7087

안내: +44-(0)1494 755559

이메일: carlyleshouse@nttrust.org.uk

찾아가는 방법: Sloane Square에서 내려 King's Road를 따라 내려오다가 왼쪽 골목인 Oakely Street로 진입하여 내려오다가 Upper Cheyne Row가 있는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 왼쪽 길인 Cheyne Row로 들어섰을 때 3-4번째 건물이 바로 칼라일의 집이다. Sloan Square에서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의 거리는 약 1mile 정도이다.

왔던 일은 한국어로 된 설명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자료를 만들었는지 궁금해 하는 우리에게 그들은 한국인 관람객이 들렀다가 한국어로 된 설명이 없다고 하자(대부분의 사이트에 외국어 설명은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로 된 설명이 전부였다.) 직접 번역을 하여 써주고 갔다고 한다. 나중에 올 한국인을 위한 그 한국인의 배려도 고마웠지만, 그네들의 유연성과 소수를 위한 배려도 인상적이었다.

칼라일의 집은 하루 20여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3월~10월까지 방문객은 연간 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상근 활동가는 두 명으로 홈페이지와 자원 활동가를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며, 겨울에는 대청소를 한다.

런던은 2차 대전 이후 급속한 사회변화로 작은 근대 건물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또 대부분의 옛 건물들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대저택이 아니어서 역사 가치를 지닌 건물임에도 무분별하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칼라일의 집은 규모는 작지만, 당대의 학자들이-찰스 디킨스, 윌리엄 데커리리, 찰스 다윈, 존스튜어트 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던 곳이기도 하며, 내부의 가구들은 그와 아내 제인 칼라일이 살아 있을 당시의 형태 그대로 복원되어 그들의 생활상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어 보존의 가치는 크다 할 수 있다.

건물이라 하는 것은 규모가 웅장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어진 것이며, 누가 건물의 주인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서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물과 달리 인공으로 세워진 것이기에 건물이 가지는 이미지는 학술과 역사 그리고 문화연구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칼라일의 집에서 몇 분 걸리지 않는 런던거리는 세계적인 패션의 거리로 방문 당시에도 패션쇼 준비로 한창 분주했다. 이와 달리 한 발자국 물러서면 고요하고 평범한 도시의 동네가 이어지는데 그곳에 칼라일의 집이 자리하고 있어, 사실 유도안내판이 있어도 찾기가 좀 힘들다. 걸으로 봐선 주위 건물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곳이 왜 보존되고 복원되어야 하는가를 따지다 보면 누구라도 건물의 역사를 되밟아보면서 역사를 알게 되고 문화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경로는 어느 나라에서나 같다. 최순우 옛집을 보존하는 일. 현재 그 주변에 한옥이 없어 옛집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보통의 한옥이기에 헐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최순우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포크레인을 질주시켜 옛집대신 돈 잘 벌 수 있는 연립주택을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이 최순우라는 당대 가장 열정적으로 한국미를 탐미했던 인물이 살던 곳임을 알게 된다면, 그의 안목이 갖는 조경과 소장품이 남아있고, 그의 안목을 배우기 위해 현재 한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걸출한 인물들이 모였던 곳이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순우라는 인물이 어찌하여 평생을 한국미를 찾는데 헌신하였는가를 이해하려고, 책을 들춰보게 되고 우리 전통의 것을 찾아보게 되고 하면서 시나브로 최순우 옛집에 기울였던 작은 관심이 한국미와 전통 그리고 문화에 대한 거대한 탐미와 깊이를 갖게 되는 것으로 확장될 것이다.

소중함을 쉽게 잊게 되는 것이 소박한 건축물이다. 왜냐하면 현란한 것에 익숙해진 비주얼세대에게 당장에 가시화되지 않는 것은 쓸모없고 촌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사회일수록 더욱 이를 악물고 외롭지만 당찬 문화유산 지키기가 필요한 것이며, 이 일이 곧 우리 마음의 평온과 안식을 찾는 일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ii. 업파크(Uppark)¹⁶⁾



(사진설명: 업파크의 전경. 울창한 숲과 운동장 같이 넓은 잔디밭 사이에 우뚝 서있다)

업파크는 17세기 후반에 세워진 역사적인 건물로 웅장함과 전경만으로도 감동적인 곳이다. 또 하나의 업파크만이 가지는 전설적 에피소드가 있다. 바로 이곳이 1989년 화재 이후 완벽한 복구로 다시 태어났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셔널트러스트는 그로 인해 많은 빛을 지게 되었다. 그 빛이란 다름 아니라, 화재 속에서 유물들을 발굴해내고 폐허 안에서 새끼 손톱만한 파편까지도 회수해내며 복원 작업에까지 참여한 모든 자원 봉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진 것들이다.

위의 사실들은 매료 건물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알 수 있는데, 이곳에는 화재 당시에 전소된 재와 함께 타다만 조각과 그 당시 화재 현장을 담은 영상물 등을 통해 참혹했던 시민유산의 죽음과 감동적인 희생의 현장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복원작업의 과정을 놀이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았다. 이러한 전시시설들은 후에 업파크를 관람함에 있어 감동을 배가 시키는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16) 업파크

주소: Address: South Harting, Petersfield, GU31 5QR

전화: +44-(0)1730 825415

식당과 상점 전화: +44-(0)1730 825256

팩스: +44-(0)1730 825873

이메일: uppark@nationaltrust.org.uk

찾아가는 방법: Petersfield 역에서 5/6ml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업파크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없어 그곳에서부터는 택시를 타야 이동이 가능하다.



(사진설명: 업파크 화재 이후, 복원 작업 과정을 놀이를 통해 일말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업파크 건물에 들어서면 각 방마다 안내자가 있고, 투명 파일을 이용하여 공간별로 전체적인 구조와 역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창문틀이나 벽에 기대어 있는 테이블에 A4 크기의 안내자료를 비치해 두어, 접근할 수 없는 장식품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역사적 연유까지 가미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천장이 높고 화려한 특징을 고려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볼록렌즈를 사용한 거울을 비치해 두고 있는 점이다.



(사진설명: 건물 외부 계단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자료, 코팅해 두어 비가와도 젖지 않는다)

외부에도 안내 자료를 코팅하여 나무판에 붙여 두었는데, 비가와도 젖지 않고 외부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방문객에게 큰 도움을 준다. 요소요소마다 침단시설은 아니지만, 내셔널트러스트의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관람객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배려는 업파크 뿐만 아니라, 내셔널트러스트 보존지라면 어디에서든 느낄 수가 있다.

지하에는 조리실, 빵 굽는 방, 치즈 숙성실, 맥주 숙성실 및 수선공의 방을 재현 해 놓았는데, 당시 하인들의 고단한 삶이 전해오는 듯 했다. 이처럼 큰 저택이 유지되기 위한 바탕으로 하인들의 숨은 공간과 함께 그들 주인의 공간과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었다.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책 중에 역사고증과 함께 하인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책(17)도 몇 가지 있었다. 이 모두가 사진

과 유물을 통한 풍부한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도 홍보물 제작 시 염두 해 둘만한 것인 것들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주제만을 생각하는데 머리가 굳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 하나의 무언가를 있게 한 다른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닫혀있는 머리를 환기를 시켜본다.

iii. 오스터리 공원(Osterley Park)¹⁸⁾



(사진설명: 좌-자가운전 배터리 차량, 우-오스터리 저택의 측면 모습)

350에이커(acre)이상의 녹화된 공원과 농장으로 이루어진 오스터리 공원은 런던에 위치한 공원으로, 다양한 종류의 조류와 야생생물들이 목초지와 호수에서 서식하고 있다. 또한 18세기 후반의 공원이 복원되어 있다. 1761년 스코틀랜드 건축가인 로버트 아담(Robert Adam)에 의해서 튜더(Tudor)양식의 저택이 18세기 신고전주의 저택으로 변형되어 주랑(柱廊)현관 뿐만 아니라 저택의 화려한 천장, 카펫, 가구를 이용한 인테리어까지, 오늘날에도 아담의 완벽한 작품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오스터리 공원의 자산 관리는 1991년 내셔널트러스트가 전적으로 맡아 보존과 복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그 주변 농장을 인수하였다.

공원은 소풍과 조용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되고 있다. 방문객들은 찻집(tea room)과 차 정원(tea garden)을 비롯한 선물방(gift shop)을 이용할 수 있으며, the Jersey Gallerie에서의 전시를

17) i. National Trust Classics 『Not in Front of The servants -A True Portrait of Upstairs, Downstairs Life』 Frank Victor Dawes , 1973

18) Osterley Park

주소: Osterley Park, Jersey Road, Isleworth, Middlesex, TW7 4RB

안내: +44-(0)20 8232 5050

팩스: +44-(0)20 8232 5080

안내: +44-(0)1494 755572

교육: +44-(0)20 8232 5069

이메일: osterley@nationaltrust.org.uk

찾아가는 방법: Great West Road의 북쪽에 있는 Thornbury Road를 통하면 이곳으로 갈 수 있다. Gillette 코너와 Osterley 지하철 역 사이에 A4 갈색 관광안내판을 따라 간다.

볼 수 있다. 또한 사전예약을 하면 결혼식과 회의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주차장과 저택을 연결시키는 특별우대버스(Courtesy Bus)와 장애인 등을 위한 자가운전 배터리 차량(self-drive battery vehicle)을 제공하고 있다.

오스터리 공원은 “벗들(friends)”라는 표현으로 후원그룹을 모집하고 있다. 후원그룹은 회원과 자원봉사를 말한다. 후원그룹으로 통해서 조성된 모금은 오스터리 공원과 저택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데, 보수 및 복원이외에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소풍용 탁자나 의자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회원들은 분기마다 상세한 활동과 이벤트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를 받게 되며, 회원들은 위한 특별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NT직원들이 관리하고 교육을 받은 뒤에 안내자나 정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스터리에서는 공원, 저택 그리고 전시관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저택 및 호수, 공원을 안내자와 둘러보고, 예술작품 상영 및 전시와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음식을 먹어본다는 체험형식의 이벤트가 대부분이다.

런던이라는 대도시에 위치한 접근의 용이함을 이용하여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주차장을 비롯하여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차량을 제공하고(장애인에 대한 배려), 가족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주로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지하철역에서부터 오스터리 공원의 안내판(출구표시)을 볼 수 있었으며, 공원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에도 안내판을 여러 개를 볼 수 있었다. 다른 보존지에 비해서 오스터리만의 홍보자료(leaflet)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방에서 방문객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는 안내자와 자가운전 배터리 차량 운전자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택으로 가는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말들을 볼 수 있다.

iv. 와데스톤 장원(Waddesdon Manor) 19)



(사진설명: 와데스톤의 영국식 정원에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과 함께)

19) Waddesdon Manor

주소: Waddesdon Manor, Waddesdon, Nr Aylesbury, Buckinghamshire, HP18 0JH

안내: +44-(0)1296 653211

예약: +44-(0)1296 653226

홈페이지: waddesdon.org.uk

찾아가는 방법: London Marylebone발 열차를 타고 Aylesbury에서 내려서 오시면 된다.

운행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구할 수 있다.(chilternrailways.co.uk)

와데스톤의 설립자인 베론 페르디난드 드 로스차일드(Baron Ferdinand de Rothschild)는 프랑스와 프랑스의 예술을 사랑했다. 그는 그의 프랑스 건축가 데스타일러(Destailleur)와 조경 정원사 라인네(Laine)와 함께 극적인 구성으로 이 르네상스 스타일의 성을 지었다. 와데스톤은 세계에 있는 프랑스 18세기 실내장식품, 미술품, 가구, 카펫, 그리고 골동품 중 최고의 수집품들을 하나씩 갖고 있다. 이는 페르디난드가 그의 주말 손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35년간 소중하게 수집한 것이다. 실외에는 그가 만든 조류 사육장, 새장을 영국 NT가 관리하며 현재 108 마리의 새가 자라고 있다, 플랑브와이양(flamboyant) 양식²⁰⁾에 기반 한, 꼬불꼬불한 산책길, 다양한 색깔의 나무들 그리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광들이 펼쳐져 있다.

다른 영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와 마찬가지로 겨울에 주요 보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지난겨울에는 내부에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초상화 등을 떼 내어 청소를 한 후 원래 있었던 장소에 걸어놓는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와데스톤의 정원은 봄~가을, 계절이 바뀔 때 마다 계절별에 맞는 꽃들을 심어 화단을 전혀 다른 곳으로 만든다.

이미 다른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에 도입된 오디오 투어는 와데스톤과 로스차일드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Waddesdon Companion Guide 책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수집품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 장원이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용 길(trail)을 따라가는 새로운 가족 오디오 투어도 준비되어 있다.

대부분의 시민유산지에는 선물방이 마련되어 있다. 와데스톤 안에도 선물방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목욕용품과 다양한 기념품뿐만 아니라 엽서, 카드 등의 편지 물품들, 유행하는 도자기, 그리고 아름답게 디자인된 직물들이 있다. 그리고 장원의 역사, 정원과 포도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The Wadesdon Companion Guide 책자를 구입할 수 있다. 방문객이라면 꼭 한번은 들러야 할 곳이다. 이외에도 Stables Shop²¹⁾과 Wine Shop, 몇 개의 특징적인 레스토랑이 있으며 이런 시설들은 때로는 시민들의 결혼식이 장원에서 열릴 경우 부대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곳에서 110여명 정도의 연회준비도 가능하다. 그 밖에 회의와 와인 시식회, 기념식, 크리스마스 파티도 진행되는데 대부분 유제품 제조실과 이곳의 식당들 그리고 포도주 저장고에 독특한 사업 환경을 제공한다.

식물센터와 종묘장에서 장원의 정원에서 본 많은 식물들을 구입할 수 있다. Manor의 화단에 장식된 대부분의 식물들은 종묘장에 의해 길러졌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정원수의 장식법, 장식품, 가구 그리고 도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식물과 나무들을 비축하고 있다.

이런 큰 장원에서도 정원, 수집품방, 새 사육장, 그리고 공공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직 한국NT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일이 업무보조 수준에 지나지 않는 반면 영국 NT에서는 그들을 교육을 통해 준 전문가로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는 곧 큰 조직을 움직이는 근원이 되고 있었다.

3-2. 해안사구 (East Head)

East Head는 영국의 남부에 위치한 해안사구로 영국에서 가장 큰 해안 사구이다. East Head를 가기 전에 많이 설레었다.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만큼 멋진 풍광을 자아내고 있을 것만 같아서였다. 신두리

20) 플랑브와이양(flamboyant) 양식

12세기 후반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 양식은 고딕건축의 최종 단계로 나타난 것인데, 물결치는 듯한 불꽃같은 형태가 직선적이었던 고딕양식에서 화려하고 복잡한 구조로 변화함을 보이고 있다.

21) 스테이블스 샵(Stables Shop)

모든 세대를 위한 책자와 기념품, 게임 그리고 식품과 조미료 등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주말과 Bank Holiday에도 연다.

해안사구는 바다와 모래, 햇볕 그 아래 평온하게 살고 있는 사구생물과 식생이 태고적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많은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개발과 보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떠돌고 있는 곳이라, 영국의 해안사구 보전 방식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설명: 좌- 해안사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담장 -왼편의 담장은 본래 사구가 바닷가 근처에 있었는데 내륙으로 후퇴하였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오른편의 담장을 새로 만들었다- 우-서부 서섹스 다운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 해안사구의 관리 방안을 문의)

이 곳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 서섹스 다운 지역 사무실 (West Sussex Downs Estate office)은 수년간 사구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장을 설치해 두고 있다. 실제로 해안에 나가 보면 이전에 설치한 담장 훨씬 안 쪽(내륙 쪽)으로 모래가 운반되어 담장을 새로 설치해 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식생은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와 비슷하게 '띠'가 자라고 있으며, 엉겅퀴 같이 가시 돋은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다. 해안 사구는 봄에 사구를 찾아오는 종달새와 검은머리물떼새, 제비갈매기, 흑기러기와 같은 철새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번식의 공간이 된다. 여름에는 관광객에게 천혜의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장소를 제공해 주고, 가을과 겨울에는 파도 소리와 새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야생의 모습을 제공해준다.

수영과 일광욕,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근처에 섬도 있고 아름다운 풍치로 인해 관광객이 많았다. 따라서 사구를 보호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았다. 내셔널트러스트는 식생 모니터링을 위해 사구 안 쪽의 넓은 평야에 있는 습지 주변에 식물을 심어 놓고 현재 모니터링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줄로 경계선을 만들어 두고 있었다. 또한 목책로를 설치해 두어 사구를 감상할 수 있게 하면서도 사구식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두었는데, 목책로 또한 담장과 같이 계속해서 그 위치를 바꾸어 설치해 두고 있다. 목책로 입구에는 사구의 주요 생물과 식물을 알려주는 작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구태의연한 표지판이 아닌 수채화로 사구와 사구생물, 사구식물을 예쁘게 그린 그림과 함께 사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 주의해야 할 사항, 연락처를 적어두고 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단순하게 구성된 표지판은 멀리서도 눈에 띄게 설치해 두었고, 읽고 싶게 유도하는 표지판이었다.



(사진설명: 좌-사구 보호를 위해 목책로를 만들고, 그 이외의 지역은 차단을 금하는 안내문
우-해안사구 생태안내판. 어린이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내셔널트러스트의 사이트를 둘러보면 각 사이트 입구 표지판의 글은 "Do not ..blur.. blur" 라는 표현 보다는 "please do like blur.."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개를 동행하지 마시오" 가 아니라 "푸른 잔디를 소중히 해 주세요" "주인의 보호 하에서만 개를 동행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규제나 금지가 아닌 '동의'와 '동조'를 구하는 표현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East Head의 해안 사구에도 방문객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East Head를 보호하는데 다음과 같이 힘을 실어주세요" 라는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문화유산이든 자연유산이든 접근을 막는 보호는 오래 유지되기 힘들다. 사람은 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자연과 문화 보전의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전과 개방 사이를 어떻게 유지하는가는 큰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과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중에 가장 큰 그것은 함께 하려는 마음일 것이다.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 같다면 개방이 파괴될 수는 없고, 비개방이 보전될 수는 없는 것이다.

3-3. 내셔널트러스트 마을 (레이콕 마을-Lacock village)

레이콕 마을은 살아있는 박물관이었다. 시간의 비행선을 타고 현재에서 13세기 마을에 안착한 것 같다는 게 레이콕 마을의 첫 인상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푸른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은 평화로운 옛 마을을 수채화 빛으로 물들였다.



(사진 설명: 좌-빅토리아 시대에 만들어져 여전히 현재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우-레이콕 마을 전경)

레이콕 수도원과 마을은 13세기에 지어진 것들이다. 수도원의 경우 외부나 내부 모두 수도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개조가 많이 되었지만 그 지하는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수도원의 장중함과 위엄이 그로테스크하면서 신비한 모습의 지하 복도 천장과 기둥에 담겨 있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마술사 해리포터의 영화 배경으로 담겼다고 한다.



(사진설명: 좌-레이콕 사원의 지하, 기괴하고 신비로운 천장의 모습 때문에
중- 영화 ‘마법사 해리포터’의 촬영지로 이용되었다
우-레이콕 사원의 전경)

수도원은 19세기 말에 사진작가이자 과학자였던 윌리엄 탈봇(William Henry Fox Talbot)을 새 주인으로 맞으면서 일반 저택으로 많이 변모하였다. Talbot은 사진기술의 'negative'와 'positive'의 개념 및 기술을 발명해 낸 인물로 평민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쏟아내는 사상가이자 정치가였다. 때문에 주변의 상류층(인텔리) 친구들로부터 지식인과 귀족으로서 평민과 어울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비판에 Talbot은 여의치 않아했다. 그의 딸 마틸다(Matilda) 또한 대중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사후, 저택과 레이콕 마을을 내셔널트러스트에 기증하여 1940년대 말에 내셔널트러스트의 유산지가 되었다.



(사진 설명-시계방향으로-:

수제 허브비누와 아로마오일 등을 파는 상점.

조지인 (The George Inn)이라 불리는 오래된 여관으로 오늘에도 숙박과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레이콕 베이커리로 여전히 고소한 빵 냄새를 풍기며, 방문객에게 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마을 집집마다 창문에 거주민 배려를 양해하는 문구가 노란색 종이에 적혀있다. 한 골동품 상점. 빛바랜 학용품과 장난감을 전시하고 있다. 판매하지는 않는다. 레이콕 양털제품 상점. 이곳에서 키운 양의 털로 화장품과 의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마을에는 여관, 빵집, 호프집, 마을회관, 고물가게 등이 이전의 모습 그대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 방문한 날이 월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꽤나 많았고 다들 마을의 모습에 놀라며 13세기의 생활상을 상상하듯 진지하게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현재 그 마을에는 70~8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본래부터 살던 사람들 또는 친인척이 거주하다가 이를 옮겨 받아 사는 사람들만이 거주가 가능하고 외부의 사람들은 이주 해 올 수 없다.

마을을 둘러보니 보수가 필요한 곳이 꽤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평일인데다 한낮이어서 그런지 관광객 이외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없어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있는 찰라, 레이콕 마을을 담당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직원을 한 명 만나게 되었다. 그는 한 집의 고장 난 창문을 고치고 있는 중이었다.

직원(D.Doddinson / 담당직무: 목수)과 레이콕 마을의 보전방법 및 보수, 마을의 이용방법에 대해 간략한 대화를 나누었다.



(사진설명: 도딘션(Doddinsion)- 레이콕 마을에서 마을 건물의 수리 및 보수를 담당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직원)

Park(박정호) : 레이콕 마을은 마을 자체가 내셔널트러스트의 보존지로서 옛 모습 그대로 보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D.: 그렇습니다. 레이콕사원과 함께 예전모습 그대로이지요.

Park: 지금 창문을 보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13세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좋긴 하지만 오랜 역사만큼이나 여기저기 고칠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D.: 그렇지요. 레이콕 사원 근처에 이곳을 담당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이 마을을 돌보는 4명의 스텝이 있지요. 우리는 마을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해마다 돌아가며 보수를 합니다.

Park: 아! 하지만 4명으로 이곳을 다 담당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은데.. 만약 집의 작은 부분을 수리해야 할 때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해주나요?

D.: 그럼요. 외부시설은 모두 우리가 담당합니다. 창문, 문, 외벽, 상하수도, 배관기, 전기, 주차장 모두 우리 손으로 고칩니다.

Park: 모두요? 집 안의 형광등도 갈아주나요?

D.: 그건 아니에요(웃음), 집주인이 합니다. 실내 장식이나 소소한 부분은 집주인들이 하고, 큼직큼직한 일과 실외 일은 우리가 합니다.

Park: 아.. 그렇군요. 그럼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D.: 네, 많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근무하는데 정신없이 바쁘지요. 작년에는 저쪽 집들 페인트칠을 했고, 이번 해에는 이쪽 집들을 하고 있어요.

Park: 페인트칠은 집주인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인 거 같은데, 함께 하지 않아요?

D.: 아니요, 우리가 다 합니다. 종종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Park: 아무리 내셔널트러스트 소유라 해도, 마을 일을 마을 사람들이 관장하고 이끌어 나가길 해야 할 거 같은데..

D.: 물론이죠, 마을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을회관에 모여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 가지 않아요. 자체 회의를 하고 마을의 장(長)도 뽑습니다.

Park: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이벤트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곳도 대중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나요? 이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주최자가 되는 것인가요?

D.: 이곳에서도 많은 시민이벤트가 열립니다. 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하지요. 대부분 레이콕 사원에서 열리고, 마을 축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년에 한 번 열리지요.

Park: 마을주민들은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에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나요? 자원 활동은 많이 하나요?

D.: 자원 활동을 하지요. 레이콕 사원에서의 자원 활동은 마을 주민들도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곳이니, 멀리서도 오지요. 마을 사람들은 내셔널트러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레이콕 주민협회 (Lacock Tenants Association)'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생활과 문화, 역사 보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거주자에 대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거주 공간의 독립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지요.

레이콕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경과 역사를 간직함으로써,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살아있는 배경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 때의 관광을 위해서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는 이벤트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마을에 사는 바와 마을을 보존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옛 것을 간직한다는 것은 세상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다. 아무리 새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새 것 또한 옛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열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예를 들면 조지 인(George Inn)이나 레드 라이온(Red Lion)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숙박과 호프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볼거리인 것이다. 보여주기 위한 행위는 만드는 이나 참가하는 이나 곧 탈진하게 만든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문화유산으로 곧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전국의 종가집이나 매화마름을 매개로 한 초지리 또한 선조들의 조금은 불편하지만 지혜로웠던 일상을 평범하게 재현하며 실천한다면 그 자체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유산이며 동시에 자연유산이 될 것이다.

III. 결 론

영국내셔널트러스트 보존지를 돌아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은 편안함이었다.

말끔하게 보존되고 있는 모습과 조용하고 세심하게 방문객의 이해를 돕는 자원 활동가들, 보존지 주변까지도 보호하여 전반적으로 한 동네가 또는 대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숲 전체가 정갈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보존지의 40%가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 보존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보존지의 특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이용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비록 수익성이 낮을 수 있지만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보존지 주변 거주민이나 멀리서 오는 방문객들은 애정을 가지고 한 때의 깜짝쇼를 위해 보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진지함을 가지게 된다. 문화와 자연유산 보존에 있어 지속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현대 첨단산업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계층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라 볼 수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회구조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그들은 능력의 소외에서 정신적 박탈감까지 갖게 된다. 영국내셔널트

러스트 보존지의 자원 활동가들은 대개가 이들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륜이 가지는 안내와 설명에 있어 풍부함을 지니며, 어느 누구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내셔널트러스트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영국 방문 이전에 홈페이지 및 여러 가지 관련 책자를 보면서, 은연중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자원 활동가들이 대부분 젊은 층 일거라 생각했었다. 일례로 대저택의 방지기 (room steward)를 모집하는 글을 보았는데, 이 일이 매력적인 것이라 10대 소녀부터 90세 할아버지까지 한 가족의 삼대가 방지기로 활동한다는 내용이였다. 이를 보면서 ‘노년층의 활동도 두드러지는 구나’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들이 자원 활동가의 주류일지는 몰랐다.

현재까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자원 활동가들 특징은 ①수동적 ②일회적 ③피드백 없음을 가진다.

자원 활동가들에 대한 단체의 관리는 ①불충분한 오리엔테이션 ②정신적, 물질적 혜택 없음 ③수시로 신청하는 자원 활동가들에 대한 관리 부재 ④자원 활동 분류가 없어 요구에 적절한 배치 못하고 있음 등의 이유로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의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형 생태 및 문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취감을 키워주기 위한 자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시도가 절실한 때이다. 이에 영국내셔널트러스트 보존지를 돌아본 후 몇 가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다. 시기가 맞지 않아 아직 시도해 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차기년도부터 착실한 시행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진실 된 마음으로 자연과 문화 보존 운동에 동참하고 그 ‘이끌이’가 될 것을 예견해 본다.

이와 함께,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보존 가치를 지닌 문화와 자연 유산을 매입하여 영구 보존·관리하는 것이 그 원칙이지만, 현재까지 한국 사회의 척박한 기부 문화와 내셔널트러스트라는 단체 및 운동의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기부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안으로 기업 및 단체의 보존지 매입을 독려하고, 이를 위탁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보다 활성화 시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동반자를 발굴’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의 두 가지 목표 즉,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동반자 발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 활동 및 시민참여 행사의 기본적인 틀 구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 사항인 자원 활동 및 시민참여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낼지를 기획해 보았다.

시민참여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진행하는 일 그리고 자원 활동가들의 역량 배가를 위해서는 자원 활동가 리더 또는 주요 자원 활동가를 상근 활동가의 수준으로 그 능력을 이끌어내고 그들과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을 ‘이끌이’ 라고 보자. ‘이끌이’의 모집 대상은 무한히 열려있다. 성별, 나이, 출신배경, 더 나아가 국적에 어떠한 배제는 없다, 다만 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할 것이다. 비록 단체의 방향성과 운동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공동체를 위하는 일과 자연·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끌이’가 모아지면 이들과 내셔널트러스트 보존지 방문과 보존지에서의 활동을 1-2달의 기간을 두고 함께 한다. 보존지 방문으로 쉽게 보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고 현지사정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행사가 없는 보존지라도 모니터링·환경정비활동을 함께 한다. 한 보존지에 ‘이끌이’는 2-3명을 확보하여 보존지와 단체의 방향성에 대해 완전한 교감을 할 때까지는 활동가가 ‘이끌이’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보존지 주변 환경·역사에 대해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활동을 독려한다. ‘이끌이’의 잠정적 활동기간은 설정해 두지 않지만, 집중적 활동기간은 2년으로 정해둔다. 2년 동안은 주도적으로 다른 자원 활동가들을 지도하고, 시민참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기간으로 두는 것이다. 2년 기간 중 두 번째 해에 새로운 ‘이끌이’들을 확보하여, 이들의 교육은 2년차에 해당하는 ‘이끌이’들이 해주게 된다. 분기별로 ‘이끌이’들의 활동을 피드백받고, 또한 분기별로 타 단체의 생태프로그램이나 ‘이

꿈이' 들의 관심분야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제교류 활동에 우선순위를 가지며, 제도적으로 이들이 준회원 또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홈페이지 상에 '이꿈이' 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두어 '이꿈이' 들 간의 교감 창구를 열어둔다. 사무처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꿈이' 및 자원 활동가들의 활동 기간 또는 활동의 헌신 여부를 상징하는 몇 가지 선물을 마련해둔다. 예를 들어, 처음 50시간의 자원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내셔널트러스트 자원 활동가 스티커를 제공하고, 100시간 활동한 이들에게 각 보존지의 전경이 들어간 컵 받침이나 공책을 제공하고, 150시간 이상 활동한 이들에게 내셔널트러스트 자원 활동가 명함을 제작해 주는 것이다. 영국내셔널트러스트의 경우,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어 자원 활동가에게 제공하는 상징품의 기준도 얼마의 시간이 아닌 활동 연도가 그 기준이 된다. 10년이 넘게 활동한 사람들에게는 사슴모양의 브로치를 선물하는데, 이것을 자원 활동가들은 아주 자랑스레 여긴다. 걸보기에는 작은 브로치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활동에 대한 깊은 노고를 치하하는 내셔널트러스트의 마음이 담겨있고, 자신의 노력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민참여 행사는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 매화마름군락지의 경우, ①매화마름 관찰행사 ②손 모내기 행사 ③김매기 행사 ④추수감사행사 ⑤국제워킹홀리데이를 진행하고, 동강 제장마을과 최순우 옛집에서도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행사가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및 일반 시민들의 참가는 소극적이다. 타 단체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홍보 미흡이 그 원인 되고 있다. 온라인 홍보가 한계가 있고, 대개 개인 참가자들은 서먹서먹한 분위기 때문에 참가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극복방안으로 우선 회원들과의 만남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4년 8월부터 '회원의 날' 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수의 회원들이 참여하기 있지만 소수이기에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감을 하는 자리로 매김을 하고 있다. 일방적이더라도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정감 있는 메일을 발송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시민참여 행사에 일반시민들의 참여 유도 방안으로, 단체 (학교·기업·동아리 등)의 참여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이는 동반자 발굴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뜻을 같이 하는 단체를 통해 후원과 행사 참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을 홍보해주면서 동시에 단체 내의 개인 회원을 발굴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이들이 새로운 동반자를 발굴하게 되는 효과까지 내다볼 수 있다. 동반자 발굴 방식은 현재의 후원 기업 발굴 방식과 맥을 같이 한다. 후원액에 따라서 공동후원, 주후원, 일반후원으로 나뉘는데, 기업에 맞춘 방식이어서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한 후원 방식을 개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선은 비영리 단체의 큰 후원을 요구하기 보다는 단체회원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참가자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때 시민참여 행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행사 참가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시도할 계획이다.

시민들을 향한 작은 혜택과 배려가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갈 때 시민이 주를 이루는 내셔널트러스트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 굳게 믿는다. 걸음마 단계로 몇안되는 상근 활동가들의 노력이 심히 요구되지만, '이꿈이' 와 동반자들의 지원으로 힘을 얻고, 적극적인 회원들의 참여로 격려를 받을 모습이 그려진다. 영국내셔널트러스트 보존지를 돌아보며,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이 외로운 일이 아닌 삶의 즐거움을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수 도록 그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한다.